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56 1983년 2월 14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February 1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14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15일 온타리오지방법원 출두예정

박인순씨등 교민3명 입건

한국여인 미국밀입국과 관련혐의

전 토론토한인회장인 박인순씨를 포함한 교민 3명과 캐네디안 1명이 한국여인들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Conspiracy to smuggle aliens into United States")로 연방경찰(RCMP)에 입건되어 재판정에 서게됐다.

연방경찰(RCMP)의 존·테이트 경사(Sgt. John Tate)와 존·콕스형사(Constable John Cox)는 11일 이들 4명은 박씨외에 박씨 부인, 박씨가 경영하는 나이트·클럽 오리엔탈·팔레스의 매니저인 최모씨와 캐네디언 스콧·맥린(Scott McLean)씨라고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은 적어도 11명의 한국여인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9일밤 연방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온타리오지방법원에 출두한다.

박씨는 9일밤 본 토론토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은 재판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발 연합통신은 박씨는 9일 뉴욕에서 검거된 46명의 한국인중 약 10명이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쇼·걸(Show girl)로 일했던 여인들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토론토·선(Toronto Sun)지는 같은 혐의로 또 한사람의 한국인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구속됐다고 전했다.

◆박인순씨

한국일보뉴욕지사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여인들은 미국 이민국·검찰 합동수사반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인 맛사지업소와 나잇·클럽을 급습하고 이민국 수사관에게 뇌물제공혐의등으로 교포 26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이민국·검찰합동수사반은 10일 연행자중 26명을 입건했고 뉴욕시청은 이번 급습에서 불법체류자 고용혐의등으로 적발된 6개 교포업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욕 남부지역 담당 연방검찰의 존·마틴검사는 10일 정오 맥파이어 경찰국장과 슬랫트리 이민국 수사반장을 배석한 기자회견에서 소위 「손잡이 작전」(Operation Handlebars)의 전모를 밝혔다. 그는 미국 변호사 페르난드·롤랜드(56)씨가 지난 2일 이민국직원을 가장한 이민국수사관에게 불법입국자의 영주권 수속등을 의뢰하면서 모두 21,350달러의 현금을 뇌물로 주다가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마틴검사는 이어 9일밤 9시경 이민국·경찰·유흥업소조사반으로 구성된 280명의 수사요원이 맨하탄의 교포업소 27개소를 일제히 습격, 맛사지업소·나잇클럽 주인과 관리인 17명(이중 교포 15명)을 체포했으며 다른 9명은 총 13만달러 이상의 뇌물수수죄, 2명은 인신밀수혐의로 입건하고, 급습을 받자 뇌물을 제공한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년6개월 전부터 이민국은 교포유흥업소 종업원의 입국과 영주권 수속에 부정거래가 있음을 탐지, 함정수사를 폈다고 말한 마틴 검사는 현재 입건된 자들은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9일밤 단속에서 10정의 무기와 마약 코케인도 발견됐다. 체포된 일부 교민들은 몰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종업원 중에는 유학생 여권소지자도 있었다.

북한, 비동맹국 외교에 차질

오남철 사건후 UN대표부 비자묶여

【뉴욕지사】 북한은 5개월째 끌고 있는 오남철사건으로 비동맹국과의 외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리들에 따르면 비동맹회의의 정회원국인 북한은 지금까지 유엔 옵서버대표부 외교관 3,4명을 비동맹회의에 파견해 왔는데 미 국무성이 북한 외교관에 대한 재입국 비자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을 비동맹회의에 참석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니카라과에서 열린 비동맹회의에 한시해 유엔 대표부 대사등 2,3명을 참석시키려다가 국무성의 재입국비자 발급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오는 3월1일부터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릴 비동맹 정상회의에도 대표들을 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동맹회의의 회원국은 97개국인데 회원국은 주로 유엔 주재 외교관을 비동맹회의 대표로 참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 회의에 유엔주재 외교관을 파견하는 이유는 이들이 평소 비동맹국 외교관들과 교류가 잦은데다가 비동맹 회의의 주요 결정이 사실상 각국의 유엔주재 관리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비동맹회의를 유엔에 버금가는 국제기구로 생각, 대규모 대표단을 참석시키며 한국을 공격하는 선전장으로 이용해왔다.

한국은 아직 비동맹회의의 회원국이 아닌데 대통령 특사로 쿠웨이트를 방문중인 박동진 국회 외무분과 의원장은 뉴델리에서 열릴 이번 비동맹 정상회의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일실험 허용

캐나다·미국 협정 체결

(오타와)캐나다 연방정부는 10일 미국의 비무장 크루즈미사일의 캐나다내 시험발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크루즈 미사일및 기타 군사장비의 캐나다상공에서의 성능시험의 길이 트이게 했다.

크루즈 미사일 시험에 관한 세부원칙은 별도의 협정으로 명시된다.

협의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보너스

연 인상율 5−6%

(오타와)가족부양비(일명: baby bonus) 인상율 향후 2년간 5~6%선으로 인상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10일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가족부양비는 250만의 어머니들에게 매월 송부된다.

「맛사지 팔러」事件 오는28일 예심公判

오렌지카운티 엘토로에서 증회혐의로 체포된 맛사지팔러경영 박웅일(40)씨의 첫 예심공판이 오는 2월28일 산타아나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카운티세리프당국은 9일 뇌물증여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박씨에게 증회이외의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지금 나는 평화로움에…"

金大中씨 近況, 피플誌보도

미국에서 신병치료를 받고있는 김대중씨는 현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외 한아파트에서 부인 이희호여사, 아들 김홍업씨(32), 홍걸군(19)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고있다고 주간잡지「피플」지가 최근호(2월14일자)에서 보도했다.

◆최근의 김대중씨-워싱턴 D.C. 교외의 한아파트에서 찻잔을 닦으며 부인과 담소하고 있는 장면을 피플지가 소개했다.

이잡지는 김씨가 조지타운대학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국내 수개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초청을 받고 있으나 최종결정은 내리지않고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에서 영주할 생각은 없는것같다고 밝힌 피플지는 미국내 교포실업인들이 김씨를 재정적으로 협조할 뜻을 비치고 있는데 한보석상교포는 김씨가 뉴욕여행시 자청해서 보디가드역할을 맡기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부부의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행복함을 주었다』면서 『지금 나는 평화로움을 느끼고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잡지는 부인 이희호여사가 옥중에 있었던 김씨에게 6백4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전주교도소까지 모두 1백67차례나 면회갔으나 불과 34회밖에 면회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씨가 일본에서 납치됐을때는 헨리·키신저 국무장관이 김씨문제를 막후에서 중재했었다고 밝혔다.

이종찬씨 사망

국방부장관 역임

(서울11일=연합)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찬씨가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씨는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6.25당시인 1952, 53년도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1960년에는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레이건 人權정책성공 金大中씨석방을 꼽아

세계의 정치범에 관한 특집을 실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2월14일자)는 레이건의 인권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는 지난12월 한국의 김대중석방을 들수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금주의 행사▶

− 1983년2월14일(월)~20일(일) −

◆15일(토) 하오8시 한일은행 토론토지점 개점리셉션
곳: 캐나다한일은행 토론토지점
(1 First Canadian Place, Suite 6960)
연락처: 865−0456

◆2월17일(목)~20일(일) 하오7:30 할렐루야 '83 연합대부흥성회
강사: 김충기 목사 토론토한인장로연합회주최
곳: 펜티코스탈교회(300 Queen's Dr., Tor.)
※20일은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19일 청소년집회는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W.)

◆17일(목)~20일(일) 하오7시 (3박4일)
한인가톨릭 여성꾸르실료(신앙세미나)
강사: 정토마스신부등 13명
곳: 토론토 한맘회관(439 Dundas St., E. Tor.)
연락처: 863−0415(한인천주교회)

◆19일(토) 하오1시 젊은이와 노인의 대화
곳: 온타리오 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
주최: 노년회·라이온즈클럽·대학생회·대학생회 동창회

◆20일(일) 낮12:30−중앙한인연합교회
캐나다연합교회 가입기념특별예배
설교: Dr. Rolphow Spencer
연락처: 922−3863, 0606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3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구정인사"

신년을 맞아
한인여러분들께
만복이 깉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한약방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 : 977−8858−9

You are invited to
an evening of Chamber Music

with
Young Dae Park violin
Wendy Rose violin
Maurice Pelletier viola
Daniel Domb cello
Timothy Dowson bass
and **Lawrence Pitchko** piano

Rodolphe Mathieu Piano Quintett (1946)
Schumann Piano Quintett Op. 44
Schubert "Trout" Quintett Op. 114

Monday, February 21, 1983. 8:00 pm.
St. Lawrence Centre, Town Hall. Box Office 366-7723

Convenient Food Mart
FOOD STORES
FOR SALE

Convenient Food Mart with over 1,000 stores in Canada & the U. S. has franchised stores available in Toronto & other areas.

Convenient Food Mart offers:

1. Complete Training
2. High Volume Sales
3. Group Buying
4. Advertising & Promotion
5. Computerized Accounting
6. Ongoing Management Assistance

If you want to own your own business, call Convenient Food Mart today for more information.

Frank Baker #202−1240 Bay St,
920−4515 Toronto, Ontario
($35,000 minimum investmet required)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정경화 또다시 토론토독주회

22일 세인트·로렌스·센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가 오는 2월22일(화) 토론토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지난해 9월 토론토·심포니와 함께 로이·톰슨·홀에서 공연했던 정경화씨는 이날 밤 8시30분 세인트·로렌스·센터·타운·홀(27 Front St. E.)에서 피아니스트 사뮤엘·샌더즈의 반주로 연주한다.

연주곡목은 로버트·슈만의 소나타 A minor Op.105, 베토벤의 소나타 7번 C minor Op.30 No. 2, 모리스·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클로드·드비씨의 "Beau Soir" 카밀 생·상의 Caprice After a Study in form of t Waltz Op. 52 No.6이다.

금년 시즌에 몬트리얼, 오타와, 밴쿠버등지에도 연주할 예정인 정씨는 4년전 같은 세인트·로렌스·센터·타운·홀에서 독주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토론토 연주는 Toronto Arts Production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티켓은 현재 세인트·로렌스·센터 박스·오피스와 전화 366-7723로 구입가능하며 $13, $11짜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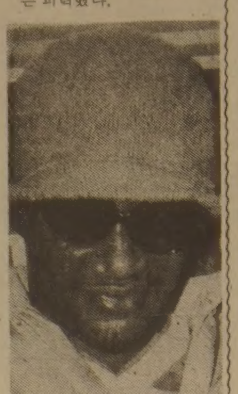
◆정경화양

북극 보행횡단 생존가능성 40%

(옐로나이프=CP)영국의 한 등산가가 북극 보행종단계획을 발표하자 한 전문가는 이 계획이 40%의 생환가능성 밖에 없다고 견해를 말했다.

군인출신으로 옐로나이프 생환학교(Survival School)의 교장인 짐·그래디씨는 이달말로 계획된 영국인 데비드·H·아담스씨의 북극종단계획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대륙의 최북단 케입·콜럼비아로부터 북극까지 돌아오는 아담스씨의 보행등반계획에는 "북극곰들의 출몰과 얼음(빙산)의 붕괴, 그리고 대평원의 고독을 견디는등의 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디씨는 피력했다.



◆에롤·브라운군

불법입국자 로타리오 당첨

영주권자격심사 청문회 열어

작년도에 자마이카로 추방당했다가 불법으로 재입국한 25세의 에롤·브라운군이 지난 5일 추첨한 로타리오에 당첨(상금 $200,358)되었는데 기쁨과 함께 재추방 선고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스카브로 켄싱턴의 고모집에서 주거를 두었던 실직의 에롤군은 1979년 10월에 한달간의 방문허가를 받고 입국했으나 방문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와 불법으로 일한 혐의로 작년에 체포되어 추방당했었다.

자마이카로 돌아간 에롤군은 작년도 자마이카 여권사무소 화재시 분실된 여권을 입수, 변조하여 다시 캐나다로 불법입국하였다.

이민국과 메트로 경찰은 에롤군의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복권당첨후 자진해서 이민국에 출두, 이민허가를 요구함으로서 이민국은 이에 대한 청문회를 수일내에 가질 예정이다.

이민국 대변인 론·불씨는 "아직 어떤 확실한 단계엔 이르지 않았으나 한번 추방당했던 사람이 다시 체류키 위해서는 이민장관의 특별한 재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

10일자 1면 〈포니〉 기사중 포니차의 값이 일본차보다 「2~3천달러 낮다」는 것은 「2~3백달러가 낮다」는 것의 오식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사중「영국에서는 별개 회사가 포니 수입과 영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현대는 제조자로서 포니를 수출하는데 그친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일부 단어의 탈락으로 불분명해졌읍니다.

실협·한인라이온스 당뇨병환자 돕기 캠페인

—토론토·스타 보도—

토론토·스타지는 10일 메트로 토론토지역의 700여 한인 비지네스맨들이 당뇨병으로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돕기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스타지는 이날 1단기사에서 서준경(John Suh) 토론토한인라이온즈클럽 회장의 말을 인용, 내년 여름 헌츠빌 부근의 캠프·휴론다에서 있을 어린이 당뇨병환자 캠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함을 한인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의 협조로 실협 회원의 상점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모금된 돈은 캐나다당뇨병협회 온타리오지부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즈클럽 집행위원회는 83년의 봉사사업으로 당뇨병 퇴치에 주력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 신문은 캐나다당뇨병협회 캠프·휴론다기금계획책임자 도로시·맥브라이드씨의 말을 인용, 작년 여름 8살부터 15살사이의 당뇨병환자 300명이 캠프생활을 했으며 금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참가할 것이며 한국 라이온즈클럽과 한인실업인협회의 협조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황용현부동산 세일즈맨 보강

황용현부동산회사에 새로운 세일즈맨으로 유웅복씨가 최근 입사했다.

서울대 공대 건축과 출신인 유씨는 약 15년간 캐나다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주로 주택부분의 설계를 담당했으며 CN콘멘션쎈타의 십슨백화점, 도미니언 스토아등을 설계한 경력이 있다.

사우디에서도 1년간 프로젝트 매니져로, 크랑크·보크회사에서는 설계팀장으로 약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씨는 작년 11월 이후 부동산 세일즈업에 투신했다.

교민동정

◆김창범(신세계여행사 대표)=작년 한국 방문시 해외선전을 위해 한국미술 5,000년 국보씨리즈 복제품을 당국의 허락을 얻어 입수, 소장중이며 관심있는 분의 연락을 바란다고. Tel: 536-2155

◆권효웅(가게 경영)=마캄/에글링턴에서 버라이어티 가게를 경영하다가, 중앙지대로 진출, 111 Peter St. ×Richmond St. W.의 샌드위치 가게 「Eat & Go」를 인수, 14일 개업한다. 영업시간은 아침7시부터 하오5시까지이고, 토요일 휴업이라서 개인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흐뭇하다고.(Tel: 596-7485)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끝)

수습 둘러싸고 정치타결 양 국민힘으로 경제협력

한일관계

납치사건 당시와 그후의 2차례에 걸친 한·일간 정치'결착(주: 정치적 타협) 때에도 완전히 내 인권은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치결착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의 일본정부의 태도였다.

결착의 대의명분

정치결착에는 그나름의 이유와 대의명분이 있었다.

73년11월의 제1차 결착은 "김대중의 행동은 출국을 포함, 자유이다. 미국·일본 체재중의 언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한·일은 이웃나라로서 복잡한 관계에 놓여있다. 김대중 본인의 목숨은 살아났으며, 사건에 한국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상호 정권의 안정에 영향이 있다. 두 나라의 앞으로의 친선에도 지장이 미치므로 일단 정치적으로는 수습한다. 김대중은 외국으로 나가고 싶으면 출국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이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은 정치가들의 이야기로는 그런대로 통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나는 한민통 일본본부의장이 됐다는 이유로 사형판결을 받음으로써「미국·일본서의 언동은 불문에 부친다」고 한 정치결착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모른체 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나는 군사재판 당시의 스즈끼 수상이나 이도 외상이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강력한 발언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그때 그저 내 목숨을 살리라고 부탁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민통건을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는 처사는 정치결착에 위반된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 관철했어야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으므로 일본에서의 언동이 유죄가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등 아리송한 태도를 보인 모양인데, 그것은 판결문을 보지 않더라도 기소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주재 일본대사관원이 재판을 매번 와서 방청했으므로 내가 한민통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경과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일본의 진짜마음

그런데 결착 당시부터 꿍꿍이속이 있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나의 친우 아슈모어 박사(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민주제도연구소장)가 주한 미대사관 고위관리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책임자(당시는 다나까내각)가 "우리들(일본정부)은 표면에서는 김대중을 출국시키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출국시키지 말라. 출국시키면 시끄러워진다"고 정치결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총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훗날 한국중앙정보부의 간부가 나의 출국에 관해 의견을 물으려고 감방에 찾아온 일이 있다. 그때 그도 일본정부가 실지로는 나를 출국시키고 싶지 않아하는 눈치임을 비쳤다.

◆정치결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국무총리(당시·좌)와 마중하는 다나까 수상.

금년 1월11일, 12일 양일간 새 일본수상 나까소네씨가 취임후 첫 외유지로 한국을 방문하여 현안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나로서는 개개의 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는 않으나, 나는 이제까지 일본의 경제협력 자체에는 반대한 일이 없다. 다만 그 경제협력의 목적이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으로 얻어진 돈은 고스란히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일본 국민이 가장 마음새겨야 할 점이다.

제힘으로 얻어야

자유도 권리도 행복도 남에게서 받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제힘으로 쟁취해야 자기것이 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드러나든 안드러나든간에 국민의 힘이 조금씩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있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끝)

日本式 마피아集團

야꾸자勢力 커졌다

美紙보도, 韓國系도 관련

LA를 비롯한 미서부지역에 일본식 마피아집단인 야꾸자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한국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LA헤럴드·이그재미너지가 6일자 특집판에서 폭로했다.

이신문은 일본야꾸자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한국계 히사유끼·마찌는「도세이·카이」의 대부격으로 「집행관」이란 별명을 지녔는데 현재도 한국, 일본, 캘리포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일교포나리또야·히로따는 주로 괌지역을 대상으로 무기밀무역을 행하고 있어 미국세관의 주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야꾸자활동은 미국FBI와 LAPD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펴고 있는데 LA지역에 약50명내지 1백명의 일본인 야꾸자단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3회「장학의 밤」 총 수익금 $19,116

캐나다 한인장학재단의 차기 이사장인 문인식씨는 9일 본사를 내방하고 지난 5일 열렸던「장학의 밤」행사에 관한 수익내용을 설명하고 총 이익금이 $19,116라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밤 초청가수로 출연했다가 최고경품인 서울왕복항공표와 한국일보 1년 구독권에 동시 당첨된 최갑석씨(미국 필라델피아 거주)는 이날 받은 항공표로 서울을 방문하여 자신의 레코드를 만들어 장학재단에 기증, 이날의 기쁨에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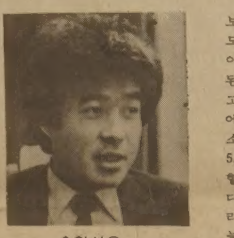
한편 장학의 밤 디너시에 한인 경영의 꽃집 "LOTUS'에서는 캐네디언 여학생 2명을 고용, 장미꽃을 판매하여 모인 수익금 $168을 모두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고 문씨는 밝혔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R.R.S.P. 마감 28일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

강상욱(메리·린치회사 증권중제인)



◆강상욱

1)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란?

은퇴후 노년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의 하나로 개인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년 최고 $2,2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Family allowance처럼 정부로부터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RRSP에 허용된 액수를 적립하고 이 액수를 자기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신고시 이미 지불한 소득세를 환불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더욱 매력있는 것은 적립된 돈이 아무리 불어나더라도 RRSP에 남겨두는 한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의 혜택이다.

2)R.R.S.P.에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액수

★직장은퇴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500이나 연 소득(이자, 투자소득 제외)의 20%중 더 적은 액수를,

★직장은퇴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500이나 연 소득의 20%중 더 적은 액수를 적립할 수 있다.

3)월급이나 노임을 받는 사람이 R.R.S.P.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들에게는 RRSP의 혜택이 직접 나타난다. $27,500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5,500을 적립할 경우 그의 소득세율이 40%라고 할때 $5,500의 40%인 $2,200정도를 되돌려 받고 소득세율이 35%라면 $5,500의 35%인 $1,925정도를 되돌려 받게 된다.

4)스토어등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이 RRSP를 활용하는 방법.

세무조사는 대개 소득신고가 비현실적으로 낮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소득신고로 보아 별 여유가 있을 수 없는데도 부동산 구입등 재산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RRSP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점 경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0로 보고되는 상점경영인의 연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득을 낮게 보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곤욕을 치르기보다는 연 소득을 $5,000정도 올려 $25,000로 보고하고 이 $5,000을 RRSP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수입보고 총액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워질 수 있고 조세소득은 여전히 $20,000(=$25,000-$5,000)이 되어 내야할 세금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떳떳하게 내놓고 관리할 수 있는 돈만 $5,000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부부및 성인가족 모두에게 각각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수입을 배분하고 이를 RRSP로 조정하면, 웬만한 규모의 상점경영에 따른 소득은 수입을 낮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잘 처리될 수 있으리라 본다.

5)R.R.S.P.의 종류

★Managed Plan: 이는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등에 의해 취급되며, 자기관리(Self-directed) RRSP보다 원금이 훨씬 적게 불어나고, 돈의 관리를 본인이 할수 없는 단점이 있다.

★Self-directed Plan: 자금운용에 대한 결정은 가입자가 직접 내린다. 이는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며 일년에 $100 정도만 내면 모든 업무처리는 대행해주며 투자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자기관리 RRSP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받거나, 원하면 정부국채나 주식등도 살 수 있다.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은행등에 맡기는 것보다는 대개 4~5%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며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자기관리 RRSP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데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며, RRSP는 한개 이상 몇개라도 가질 수 있다.

6)Canada Savings Bond(CSB)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R.R.S.P.를 이용하는 방법.

자기관리 RRSP에는 CSB나 주식을 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넣는 대신 이미 사 가지고 있는 CSB나 주식도 넣을 수 있다. 개인 소득세율이 30%인 사람이 이미 사가지고 있는 $5,000 상당의 CSB나 주식을 RRSP로 옮기게 되면 자기의 현금상태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이 세금보고시 $1,500 정도의 세금환불만 받게된다.

자기관리 RRSP를 잘 이용하면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R.R.S.P.에서 돈을 찾으려면?

해약하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으며, 찾은 액수는 당해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실직된 해에 찾으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8)마감일은?

지난해인 82년도 분의 마감일은 3월1일이므로 관심있는 분은 즉시 증권회사에 연락해야 되리라 본다.

★자세한 문의는 Merrill Lynch의 Mr. 강에게 하면된다.(전화: 361-3428)

かぶき
ステーキハウス
새로이 스시바 오픈!
KABUKI
JAPANESE STEAKHOUSE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Just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tel
reservations accepted

학 생 모 집

1983학년도 제1학기 본교의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학 과 : 평신도 훈련과
자 격 : 고졸 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비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 함)
수업료 : 70불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수업장소 : 252 Bloor St. W.(교육회관)
개강일시 : 1983년3월5일(월) 오전9시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3년2월10일~3월5일
Lee's Printing(2157A Weston Rd.)
☎ : 244-2301, 233-2266
참 고 : ①본교는 일반 신학교와 달리 평신도 훈련과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졸업이수 학점은 24학점임)
②본교의 졸업자는 노회가 실시하는 장로고시의 성경과목을 면제 받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캐나다노회
칼빈신학교 교장 계 화 삼

제4회
최고위전도전자결정
바둑대회

시 일 : 2월19·20 양일간
매일 오후1시부터
장 소 : 한국기원
(653A Bloor St. W.
☎ : 533-0168
참가자격 : 바둑애호자 환영
경기방식 : Full League전
동승률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적용함.
참 가 금 : $20.00
시 상 : 1·2·3등 Trophy증정
기 타 : 본선은 2월26일 오후6시
※시상식은 3월1일(월)
창립3주년 기념일.
한국기원

차선겸씨 성공담 본국잡지에 소개

토론토의 실업인 차선겸(38)씨의 사업성공담이 서울 연합통신이 발간하는 격주 경제지 「세계저널」에 소개되었다. 배승원 연합통신 캐나다특파원이 취재한 이 특집기사는 동지 「2월상반기」호 「해외교포기업 성공사례」난에 「토론토의 한인잡화상 체인」이라는 제목하에 2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온타리오주 한인실업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차씨는 캐나다 이민 9년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굴지의 실업인으로 성장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남이 돈을 갖다주는 것 같이 돈이 벌리는군요.』토론토 중심가에 시가 230만달러짜리 빌딩과 교외에 시가 156만달러짜리 건물 등 빌딩만도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 차선겸(38)씨의 말이다. 캐나다 이민 9년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굴지의 교포실업인으로 성장한 차씨는 캐나다 우리 교포의 생활수단으로 대종을 이루는 잡화상(Grocery Store)을 경영, 백만장자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구멍가게서 백만장자로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한인실업인협회장이기도 한 차씨는 이민 첫해 너무 살길이 막막해서 몇번 죽음도 생각했었다고 한다. 돈이라면 신주 모시듯하는 서양사람들이 돈을 그냥 갖다 주기는 만무한 것. 이 정도까지 부를 이룩하기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내세우기를 싫어하는 성품이어서 운이 좋아 오늘이 있었다는 식의 설명이다.

추한 동양인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옷도 항상 깨끗이 입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다든가 아니꼬운 일 앞에서는 일그러진 미소나마 지어야했다는 등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차씨가 있게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처음에는 18개월된 어린 것을 가게 카운터 밑에 재우면서 부부가 정신없이 뛰었다는 눈물겨운 사연마저 있다.

부산이 고향인 차씨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캐나다로 이민온 것은 지난 74년, 이때만해도 한국인이 캐나다의 은행들로부터 단돈 4,000~5,000달러를 대출받기가 힘든 때였다. 이민올때 갖고 온 몇푼 안되는 돈을 까먹다보니 6개월후에는 수중에 2,000~3,000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더 망설일 여유가 없어 1주일에 2,000달러의 매상이 가능하다는 조그마한 가게를 빚을 내어 샀다. 그러나 1주에 2,000달러는 커녕 하루에 100달러어치도 팔기가 어려웠다. 물정을 모르고 속아서 산 것을 알게 된 그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부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다.

世界 속에 韓國을 심는다 / 海外교포기업 成功사례 ④

터론토의 韓人 雜貨商체인

『남이 돈을 갖다주는 것 같이 돈이 벌리는군요.』토론토 중심가에 시가 230만달러짜리 빌딩과 교외에 시가 156만달러짜리 건물 등 빌딩만도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 차선겸(38)씨의 말이다. 캐나다 이민 9년만에 자타가 공인하는 굴지의 교포실업인으로 성장한 차씨는 캐나다 우리 교포의 생활수단으로 대종을 이루는 잡화상(grocery store)을 경영, 백만장자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

◆차선겸씨에 관한 기사중 일부.

첫째도 둘째도 친절

말이 좋아 grocery store, variety store라 했지 사실은 neighborhood corner store(골목 구멍가게) 정도였다. 담배나 껌, 과자부스러기를 팔아 코묻은 돈 모으는 것으로 캐나다 토박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곳에서 이민 온 유럽사람들도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장사였다. 그러나 차씨 부부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이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했으며 물건도 되도록 다양하게 갖추어 놓았다.

파는 물건들의 멍어리가 보잘 것 없으니까 이윤도 적을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될수록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럴려면 가게문도 늦게까지 열어놓아야만 했다. 아침 새벽 도매상(whole saler)에 가서 물건 사오는 것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해서, 밤에 가게 청소까지 끝내면 새벽 1시가 되는 것은 보통이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은 고작 대여섯시간으로 이를 빼고는 종일 서 있는 꼴이었으며 발이 부르트는 것은 예사였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마저 없는 형편이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은 충혈이 되었으며 코피를 자배기만큼 쏟는 것은 예사였다. 코묻은 돈이라도 한푼두푼 쌓이자 희망이 서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이민초기에 비하면 행복한 기분마저 들게 되었다.

더욱 더 친절하자는 생각에서 물건에 투정을 부리는 고객에게는 손해를 보면서도 바꾸어 주었으며 아니꼬운 일이 있어도 억지 미소라도 지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얼마 가지않아 1주일 매상고가 5,000달러로 뛰었으며 두번째 가게를 사게 되었다.

그후 얼마 안돼 맥스밀크(Mac's Milk) 체인의 가맹점(franchise)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씨가 돈을 모을 운이 트였는지 체인경영층들이 가게들을 불하처분하기 시작했다. 차씨는 우선 자신이 가맹점을 산 가게부터 불하받기 시작했으며 다른 가게들도 싼 값으로 불하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불하받은 것이 모두 40개. 이들 가게들을 한국인 지배인을 고용, 얼마간 운영하다가 웃돈을 얹어 팔았다.

재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한때는 제가 가게를 16개나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요. 신통치 않은 것은 처분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현재도 7개나 갖고 있읍니다』는 차씨의 말이다.

현재 갖고 있는 가게는 매니저들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부동산업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이며 호텔업에도 손대볼 생각이다.

고국 돕는길 찾아

온타리오주 한인잡화상 900가구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씨는 한인실업인협회 일도 자기 사업이상으로 열의를 갖고 돌보고 있다. 현재 이들 한인실업인들의 1년 구매력은 1억7,000만달러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어서 몇년전만 해도 한국인 잡화상을 천대하던 서양인 도매상들도 이제는 우리말로 출판되는 「실협뉴스」를 번역을 시켜가며 읽을 정도가 되고 있다. 우리 교포상인들의 동향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작정입니다. 연간 1억7,000만달러라는 돈이 지금은 유태계 도매상들 손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협동으로 구입하면 구입원가도 싸지고 고객에게는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차씨는 『또 이렇게 해서 남는 이익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공장도 만들어 물건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한인실업인협회 회원들이 구입하고 있는 물건의 20% 정도가 손톱깎이, 포크, 나이프, 인형등 한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인데 차씨는 앞으로 본국과 직거래를 틈으로써 회원들도 좋고 모국도 좋은 길을 찾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민 초창기에 느낀 막연한 향수와는 달리 두고온 고국에 대한 애착감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고 말하는 그는 『단순히 보고싶고 그립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국을 도울 수 있나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비단 차씨만은 아니어서 실업인협회내의 생활이 안정된 회원들은 모두 다같이 이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유기정회장을 비롯 유수한 모국의 실업인들이 오고가 유익한 사업이면 서로 교류를 해보도록 회의를 많이 가졌으나 아직까지는 신통한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차씨를 비롯 크게 재력을 모은 많은 교포실업인들은 조그마한 물건이나마 우리 것을 들여와 팔음으로써 조금이라도 고국을 도우려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 크게 사업을 벌여야겠다는 막연한 구상을 하기 보다는 자기나름대로 고국을 도울 길을 찾아 자기 보람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배 승 원

(연합통신 토론토특파원)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69>

金聖鍾작

이상한 女人 ⑭

朴男 그림

라일은 어느새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그를 움직이자 타일은 겨우 그 부분만을 가리게 되었다.

『그것은 화교 범죄조직이에요. 역사가 짙고 무서운 단체에요. 저도 물론 그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예요. 모세와 나는 서로 작당해서 그 조직에서 이탈했어요. 조직에서 이탈하면 그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바른대로 말하면 우리는 경찰에 쫓기고 있는게 아니고 조직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 혼자만 남은 셈이에요.』

여자가 허리를 폈었다. 라일은 더욱 둥그렇게 움직였다. 허리에서 둔부로 이어지는 곡선이 기막히게 육감적 이었다.

『그렇다면 모세는 중국인이었소?』

"당신이 찾는 열쇠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는 튀기였어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튀기였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지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때 헤어졌나봐요. 그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홍콩으로 건너가 살았대요. 홍콩에서 성장하다가 아버지가 죽자 한국으로 건너왔대요.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에살아 있어요. 나는 그의 부탁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봤어요. 그노파는 아들의 색시를 보는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잠시 며느리 역할을 한거죠.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노파는 내 손을잡고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모세는 의외로 어머니에게는 꼼짝 못했어요. 그는 효자였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효자였다니 믿어지지 않은일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은 진짜인가요?』

『진짜 이름은 나도 몰라요.』

『당신 이름은 뭡니까?』

그는 될수록 여자의 몸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수지라고 해요.』

그녀는 이불 위에다 손가락으로 『水知』라고 썼다.

『성은?』

『그런건 아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명이 아닌걸요.』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글쎄…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사랑하고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바람에 젖가슴이 출렁거렸다. 두봉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당신이 찾고있는 열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물건인데?』

『굉장한 물건이에요.』

그녀는 두 손으로 젖가슴을 감싸안았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7

549 BLOOR ST

三國志 562

글·高羽榮·그림

THE KOREA TIMES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 533-2361~4

▲구독신청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초대합니다○

젊은이와 노인과의 대화

지난해에 있었던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에 이어서,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과 조언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83년2월19일(토) 오후1시부터

◇곳 : 온타리오교육회관 252 Bloor St. W. 2층

노 년 회

라이온즈클럽

대 학 생 회

대학생회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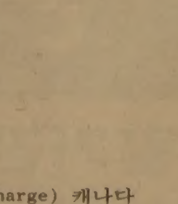
초대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창립기념과 아울러 조직교회로서(Pastoral Charge) 캐나다 연합교회에 정식 가입함을 기념하는 특별예배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여 하느님의 영광을 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83년2월20일(일) 낮12시30분
2. 장소 : 중앙한인연합교회(353 Sherborne St. Tor.) ☎ : 922-3863
3. 담임 : 김 택 규 목사
4. 설교 : Dr. Ralph W. Spencer
5. 특별순서 :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연주및 반주



중앙한인연합교회

인사의 말씀

유웅복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부동산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여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에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본인은 건축공학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카나다에서 14년 동안 건축설계업에 종사해온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살려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안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후원을 부탁드리오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유 웅 복 배 B) 449-8644 R) 447-9395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M3B 1Z3
TEL: (416) 449-8644(B)

한국일보

庶民生活·物價와 직결된 1백개 品目
價格·수급동향 1일점검
政府、부동산·집세 安定방안도 강구

정부는 서민생활에 직접적 인영향을주는 전세, 월세등집세와 임대료를포함한 부동산가격과 농수산식품류, 이·미용, 목욕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물가시책을 운용해나가기로하고 금명간 관계장관회의를열어 토지등 부동산투기 대책과 집세및 임대료 안정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또 농수산부산하에 별도의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회의와 실무위원회를 설치, 39개주요농수산물의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면서 가격안정대설정, 수급물량조절등으로 가격안정을 꾀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가격조작등 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하는 한편 전국 각시도지사에게까지 책임을 부여, 관할지역 소관품목에대한 자체가격안정대책을세워 추진토록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농수산부는 9일 차관 (위원장)과 수산청을 포함한 본부국장, 농협 수협 축협 농개공등 산하기관 단위이사들로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산하에 관계기관실무관계자를 망라한 실무협의회(위원장 농업정책국장)를 설치, 전국15개도시를 대상으로39개주요농수산물가격의일일점검에 착수했으며 이에앞서 8일부터 정부미방출, 농협 수협 축협및 농개공을 통한비축물량방출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전체물가에 기여도가높고 서민생활에 긴요한 1백여개 품목에대해 소관부처담당 사무관을 책임자로하는 부처별 품목별 물가담당관제를실시, 소관품목의가격및 수급동향을 일일점검케하고 인상기미가있는 품목은 비축물량방출, 수입개방및관세율 인하등으로 사전대처키로했다.

쌀 쇠고기 돼지고기등 10개 기본 생필품은 가격안정대를설정, 물량조절로 대처하고 58개 사후관리대상 공산품가격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가격남용행위로 부당인상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결정에 직접개입은 피하면서 원자재와 유가등 하락으로 인하요인이 생긴 품목은 가격을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평화적 政權교체 꼭이룩"
民韓 全黨대회 柳致松총재 재선출
國會法등 조속히改正
在野迎入케 黨職확대

◇9일 民韓黨 전당대회는 野黨史上초유의「총재 無競選」선출이란「異例의 기록」을 남기기는했으나 85년 총선에서의 승리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다짐하는「跳躍의 熱氣」는 가득했다. 柳致松총재가 대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고있다.

民韓黨은 9일 상오10시15분 서울世宗문화회관 별관에서 대의원5백11명이 참석한 가운데 創黨후 첫 정기全黨대회를 열고 제2代총재에柳致松현총재를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이에따라 柳총재는 오는85년 12代총선이 끝날때까지공천권행사등 당운영에대한 黨權을 사실상 장악한 셈이다.

이날대회는 全黨대회의인준을받게되어있는 부총재 2명과 고문약간명을 지명권자인 柳총재에게 人選을 委任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金俊奉현全黨대회의장과 高永九부의장을 유임시키고 孫泰坤부의장후임으로 延濟源의원을 선출했다.

全黨대회는 또 在野정당과의 통합과 在野인사 迎入을 위한 黨職을 확대, 在野영입을 위해 당무위원수를「5人이내」에서「10人이내」로, 중앙상무위원수를「20人이내」에서「40人이내」로 늘리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黨憲개정안과 정강정책 修正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柳총재는 致辭를통해『우리는 지난2년간 절망적인 상황속에서도 좌절하지않고 오직 民主의 脈을 키워야겠다는 강인한 의지로써 국민의 편에서서 싸워왔다』고 전제한후『오늘 우리는 이나라에 민주주의를 확립할수있고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할수있다는 자신을얻게되어 그 감회는 이루 말할수없을정도로 벅차다』고 말했다.

그는『지난번 光州의 年頭기자회견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위한 4대전제조건으로 ▲국회법의 조속한개정 ▲언론자유보장▲균형있는 與野정당체제의확립▲공명선거보장등을 제시한바있다』고 상기시킨후『정부가 스스로 한말을 그대로실천하지않고 평화적정권교체를 내세우면서 이를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야당의 주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여당의 자세를 이해할수없다』고 비난했다.

柳총재는 또『나까소네 日本수상의 韓美방문에이어 슐츠 美국무장관의 極東순방은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시킨는데있어 단계적 交叉승인등 중대한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있으며 韓半島의 정세는 또다시 強大國의 흥정거리가 되지않나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고『6천만민족의 死活에관계되고 이나라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南北문제는 어떤경우에도「政權安保」라는오해를 받지않도록 공개하고 협의하여 超黨外交의 기틀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정치활동 被규제자의 전면 解禁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民韓黨은 민주세력의 집결체이며고▲조국통일의 노력을 경주하고▲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黨力을 집중시킨다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대회에서 柳총재는 黨발전에 기여한 유공당원 1백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民韓 柳총재밝혀
來週 黨職 대폭개편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9일 黨職개편에 언급,『대체로 來週중 人事를 단행할 예정이며 인사폭은 창당2년이된 만큼 대폭적인 개편이될것」이라고 밝혔다.

柳총재는 이날 총재에 再選된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구상단계로서 구체적으로 밝힐수없으나『가급적 빠른시일내에 黨職을개편하겠으며 앞으로 2~3일을 두고 黨중진들과 의논한뒤 黨이 人和단결할수있는 방향으로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기반조성을 黨이 내세우고있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適材適所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柳총재는 南北韓 交叉승인등을 둘러싼 韓·美·日간 美·日·中共간등의 관계와 최근의 주변情勢와 관련,『명실상부한 超黨외교가 이루어저야한다』면서『중대한 국가安保와 외교문제는 국민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요청한다면 民韓黨은 외국정당과의 접촉등 나름대로의 野黨외교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國民에 메시지채택

民韓黨은 9일 全黨대회에서「국민에게보내는 메시지」를채택『民韓黨의 각오를 오직 평화적 정권교체에있음을 재삼다짐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법의개정, 민주회복의 地方自治制의 실시, 국회법의 개정, 언론의 활성화등 비민주적 모든법규의개폐를 통해 불안을없는 사회건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메시지는 또『이같은 정당한 요구가외면될때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사태에대한 역사적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세력이 져야하는것을 국민과 더불어 경고하고자 한다』면서『民韓黨은 受權정당으로 黨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이나라 민주화와 평화적정권교체의 터전마련에 집중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北韓개방토록 국민운동전개
全대통령、離散가족재회 추진위원접견

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1천만 離散가족재회추진위원회의 趙永植위원장등 임원1백11명을 접견하고 다과를베풀며 환담을나눴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국제환경이 나날이 변하는마당 北韓당국도 언젠가는 그들의 회를 개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며 우리스스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중심이돼 北韓이 사회를 개방안할수 없게끔 汎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류들도 적극호응하도록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여러분들은 우리민족의숙원인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위한 핵심세력으로서도 그기대가 큰만큼명분만이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있도록 자신감을갖고 활동해나가라』고 당부하고『정부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수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孫在植통일원장관과 李碩峰平北지사등 以北5道지사가배석했다.

中日新聞 사장도

全斗煥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일본中日新聞의 가또·미이찌로(加藤巳一郎) 사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盧外務차관 出國

盧載源외무차관은 오는12일부터 14일까지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리는77그룹 아시아지역 閣僚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키위해 9일하오 出國했다.

大學、成績평가 수시로
졸업 定員制도 엄격실시
文教部、전국大學 總·學長會議서 지시

문교부는 9일 대학의 성적평가를 수시로 다양한 방법에의해 실시하고 축제 응원등 수업외의 모든 행사는 방과후나 방학등에 이뤄지도록하라고 각대학에지시했다.

또 졸업정원제는 현행제도를 계속유지할 방침이므로엄격한 학사관리로 중도탈락제를 엄수하라고 지시하고 졸업정원제 운영이 부실한 일부 여자대학등에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상오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전국98개 대학총·학장회의를열고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시간전후의 휴강과종강을 금지하며、수업이 실제로 이뤄지지않은 시간수를 법정수업일수 (2백10일)에 포함시키지말고 1학점은「1학기에 16시간이상」의 수업시간을 엄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올해1학기부터 이제까지 정기적으로 치러오던 학기말고사나 기말고사는 완전 폐지되며 학생들은 수시로 시험을 보고 성적평가도 복·예습、과제물처리결과 또는 수업시간의 학습활동도포함되게돼 대학교육의 큰변화가 일게됐다.

또대학은 교수들의 임의휴강이나 결강을 막기위해 일일출강상황을 확인토록 했으며 한기개시전에 학생에게강의계획서를 배부토록했다.

한편 문교부는 졸업정원제 실시에따른 학년별 탈락비율을 현행 2학년말 18%선서울大는 20%、3학년말 2%、졸업시 10%선으로 정해진것을 대학이 전체탈락률30%선에서 사정에 따라 완화조정할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自律化 補完策협의

정부는 9일하오 중앙청에서 金相浹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海外여행자율화로 최근들어 빚어지고 있는 外貨낭비등 부작용방지하기위한 補完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여행자율화이후 해외여행자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산물품을반입해오는등 외화를 남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있고 해외여행자율화의 眞意를 悪用、사치스러운여행을 하거나 不要不急한 여행을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있어 이를 규제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키위한 것이다.

이날회의에는 李範錫외무、盧泰愚내무、姜慶植재무、李奎浩문교、金正禮보사、李熺性교통、李振羲문공、朴贊兢총무처장관등이 참석했다.

東지나 海上에서 中共、4번째시추

【東京=聯】 중공은 작년12월중순부터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동지나해상에서 4번째 석유시굴작업을 시작했다고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석유개발 관계자가 9일 확인했다.

중공은 80년11월 82년2월 82년3월등 모두 3차례에걸쳐 한일공동개발구 인접해역에서 시굴작업을 벌였으며 1호정에서「다층고압천연가스와 기름모래를 발견했다」고 밝힌바있다.

國民、오늘黨務회의

국민당은 10일상오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후 첫당무회의를열고 金鍾哲총재에게 一括위임된 黨職개편의 인선과 위해 당무위원의 一括辭表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총재는 부총재를비롯、黨3役등 黨職개편을 빠르면 11일 늦어도 12일까지는 단행할 예정이다.

오늘 公館長회의

금년도 제2차 在外公館長회의가 亞洲、美洲、歐洲지역공관장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부터 19일까지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회의에선▲南北韓交叉승인문제▲對東歐圈및 未修交國 관계개선방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책▲88올림픽및 국제의회연맹(IPU) 홍보계획등이 토의되는데 재외공관장들은 회의기간중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의식개혁교육도 받는다.

社會漫評

火災예방은 안하고 火災후 조사만하기로…

地平線

부지런하고 끈끈한 사람이면 대개 내일은 뭘할까 전날밤 잠자리에 들기전에 생각하게 마련이다. 음의 컨디션은 어떻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미리컴퓨터에넣어 아침 몇시에 깨면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칠수있는지 궁리만하면 된다. 잠들었을때 선잠을 잤는지 온도·습도가 알맞았는지를 컴퓨터가 계산해 내면 로보트는 가정부대신 아침메뉴를 마련하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동안 좋아하는음악을 틀어놓는다. 照明、아침코피、그날일을 옷가지 척척입혀준다. 식사후 설겆이와 청소는 물론 주인 부재중의 손님접대까지 로보트가맡아서할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곧 온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꿈 같은 얘기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로보트 시대가왔다고 한다. 우주선의 바깥작업에서나 쓰는줄 알았던 로보트가 실제로 국내 공장에서 일하게 될 날이 내다보인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정밀 기계실에서 로보트에 의한 대량생산 방식의 자체개발에 성공、로보트 무인공장 시대가 다가선 것이다. 수 많은 로보트들이 쇠를 절단하거나 깎는 일에서부터 용접도 한 뿐 아니라 고장이나면 직접 진단해서 수리까지 한다고하니 놀랍만하다.

▼원래 robot(로보트)란 말은 일한다는 뜻을가진 체코어 robit에서 나온것이다. 카렐·차페크의 諷刺劇 Rossum's Universal Robots의 주인공인데 무임노동자인 기계인간을 이름이다. 戯曲에서 로보트는 사람의 온갖 두뇌·육체노동을 도맡아하다가 고물이되어 못쓰게되면 고철로 버려진다. 이때 로보트들이 사람에게 반항한다는것이 스토리의 내용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로보트는 사람이 조작하는 단순 로보트가 아니다. 미리 정해진 공장의 각단계작업을 스스로 하는 시퀀스로보트,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플레이백로보트뿐 아니라 數値制御도 하는 NC로보트까지 망라한 산업로보트이다. 감각기능이나 인식기능까지 갖춘 지능로보트는 포함안된것 같지만 우리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것으로 보아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기대해 볼만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공학이고 보면 미래의 총아 로보트의 개발발전을위한 로보트工學、로보트産業의 앞길은 무한정한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로보트를 인간이 지배해야지 인부소설처럼 로보트에 지배받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될일이나 우리의 지금 처지로선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로보트를 가정부로 쓸수있는 날이 언제쯤 올지 자못 기다려진다.

한국일보文化센터 봄講座 會員접수중
★8면참조
접수처
한국일보6층
744-5101~3
722-4161(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8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우비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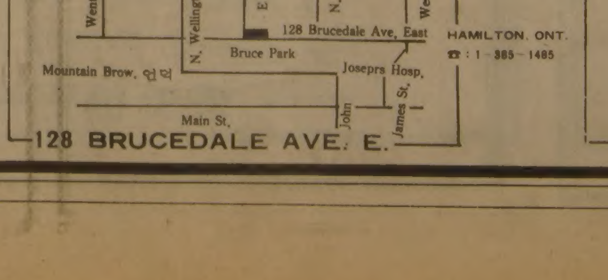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외할머니떡도 싸야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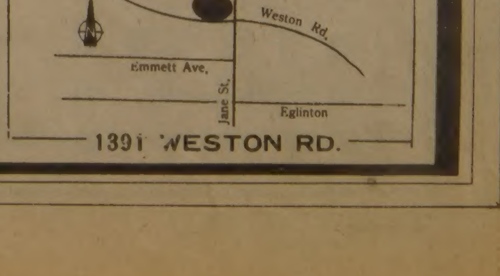
특별세일기간
2월8일(화)
~3월8일(화)까지

□100불이상 상품구입시
쌀50Lb(선학표 또는 가주미)
1푸대 Free
□50불~99불 상품구입시
라면(사뽀로 또는 삼양)
1Box Free
□30불~49불 상품구입시
닭표간장(900ml) 1병 Free

★일일이 많은 스페샬품목을 열거치 않겠읍니다.
모든상품을 토론토사상 최하가격으로 봉사하겠읍니다.
※Free 품목은 쌀, 불고기, 갈비, 참기름, 간장및 Box품목
(예 : 라면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1-385-1485
해밀톤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243-9544
서부 서울식품


1391 WESTON RD.

査問委、難民학살 眞相발표 波長

베긴、막다른 골목에

野서 총사퇴요구、不信任案
노동당主軸 새聯政등 모색

◇베긴이스라엘수상이 8일 3人査問委員會가 팔難民村학살사건에 베긴수상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데 뒤이어 특별각의를 소집、사태를 숙의하고 있는모습。【예루살렘8日AP聯合】

지난해 9월16일 밤 9시、이 시각에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란 대학살극은 시작됐다. 18일 상오6시30분까지 미쳐날뛴 레바논 기독교민병대의 손에 생존자는 한 사람도없었다。

불도저로 밀어붙인 집단매장지의 시체를 합쳐 모두 1천여명이 처참하게 죽었다. 가축들도 모두 도살을 당했다。

그날 西베이루트의 모든 전략요충을 점령했다는 이스라엘軍의 발표에 때맞추어 30대의 트럭에 나누어 탄 기독교 민병대 7백명이 베이루트공항 집결지에 속속도착하고 있었다. 상오9시、이들은팔레스타인 난민촌인 사브라、샤틸라 근처로이동、진을치고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91m떨어진 이스라엘군 사령부 8층건물 옥상에서 이스라엘 국방상 샤론이 참모들과함께 난민촌을 내려다보고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다。

샤론의 진입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독교 민병대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그 외곽을 꽉죄어 탈주자를 막았다。

이렇게 저질러진 학살극의 진상이 4개월만에 밝혀졌다. 이스라엘의 3人査問委는 8일 학살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해오던 베긴정권에 폭탄선언과 같은 진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査問委는 이 보고서에서 사건의 전적인 책임은 학살을 직접 자행한 레바논인에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던 관할구역내의 안전은 점령군인 이스라엘군이 책임져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샤론국방상이 레바논내의 모든움직임에 깊이 개입해왔음을 지적하고 샤틸라와 사브라수용소내의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소탕하는데 열을올린 나머지、레바논대통령 당선자 바시르·제마엘이 폭사한후 과격기독교도들 사이에 내연하고있던 對팔레스타인복수심을 간과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샤론 국방상등의 해임을 권고한 3人査問委의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담고있는 도덕적무게는 무시할수없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밝혀낸 사건의 진상이란점에서 국외의 어떤 비난보다도 베긴정권이 받는 압력은 더욱 크다。

3인사문위의 보고서를 전달받고 베긴은 즉시 특별각의를 소집、대책을 숙의 했다。두차례에 걸친특별각의에서 대부분의 각료가 3인사문위의 보고서내용을 지지하고나서 베긴을 궁지에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베긴의 聯政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종교당은 샤론이 사임을하지않으면 聯政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야당인 노동당은 베긴정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나섰고 소련과 제휴한 공산당은 이미 베긴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놓고있다。

베긴은 언제나 샤론의 사임을 반대해왔고 난민학살사건에서 샤론의 행동을정당화해왔다。그런 샤론이 사임하면 베긴도 수상자리에 붙어 있을 명분이 약해지는것은 자명하다。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국은▲베긴이 샤론을 해임시킨채 내각을 존속시키는 방법▲내각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실시하는방법▲최후의 대안으로 야당인 노동당이 주축이돼 새 聯政을 구성하는 방법등의 수습책이 거론되고 있다。

베긴정부 위기에 대해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바라온 이스라엘 내각의 개편희망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현재 진행중인 레바논사태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미국으로선 샤론같은 강경파의 사임을 크게 환영할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있다。

이번 査問委의 조사결과가 낳은 정치적 파급효과와는 별도로 사람들은 4개월에 걸친 집요한 조사로 용기있게 사건의 진상을 밝힌 査問委員들의 양식을 칭찬하고 있다。이들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협박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정부에서는 그들에게 경호조치를 강화했다。

어쨌든 1백8페이지의 査問委 조사보고서로 해서 세계사를 사브라、샤틸라의 참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기록할수있게됐다。그러나 역사의 기록과 증언으로도 존엄한 생명의 희생을 보상해줄수 없는 안타까움은 그대로 남는다。【崔相鎬기자】

社 說

새 政黨政治「제2기」
—民韓·국민兩黨의 全黨大會를보고

게절적으로 解凍을 눈앞에 바라보는 요즈음 與野 주요3당이 갓 全黨大會를 치렀거나 또는 그 준비에 바쁘다。9일 제1野黨인 民韓黨이 創黨후 첫 全黨大會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는데、국민당의 경우는 지난 3일에 열렸었다。오는 3월하순에는 民正黨의 全黨大會가 예정되어있다。

어느 경우건「제2기」의 새 출발이 강조되고있는점이 인상적이다。이는 제5공화국 출범과 때를같이한 격동·혼미 속의 創黨을 거쳐 어언 2년이 경과했으니 黨의 존재양식을 성찰만한 시점이기도 하려니와、멀지않아「解禁」조치가 예견되는 가운데 85년 總選을 내다보는 중간기에 해당된다는 사정으로 풀이된다。또 한가지 공통점은 각黨이 創黨후 최초의 黨大會에서 한결같이 총재를 만장일치격으로 再選하고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총체적인 政局安定을 관측케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제 진행된 民韓黨의 全黨大會는 和氣애애하고 一絲不亂한 분위기속에「正統野黨」의 긍지를 다지면서 柳致松총재의「무경합 再選」을 선포했다고 한다。對話政治를 표방하는 穩健路線을 재확인한 셈이다。동시에 柳총재는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좌절하지않고 오직 民主의 脈을 키워야겠다는 강인한 의지로써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고 자부하는데 입각하여 앞으로 民主主義와 平和的 政權交替의 기틀을 다져나갈 결의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 指導路線은 현실적 狀況論理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平和的 政權交替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國會法·言基法·選擧法의 개정과「균형있는 與野政黨體制」의 수립 내지 地自制 실시등에 걸쳐 점차 對與姿勢를 강화하면서 野黨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려는것으로 집약할수 있겠다。

당면한 난제로는 政治被規制者 1단계解禁조치에 따른 迎入·수렴문제、正統野黨 표방에 부응하는 體制영역 확대와 政局安定의 조화점 모색、2년후에 맞이할 12대總選에의 대비、政治資金 조달의 애로등이 손꼽히고 있다。

그런대로 民韓黨은 지난날의 與野관계에서 특징적이던 獨走대 極限투쟁등 限界政治상황을 회피하는 한편 政治不在의 인상도 불식하려는 방향에서「온건野黨·건전野黨像」을 부각시킬수 있었다고 본다。政策代案연구도 상당히 착실했다고 평가된다。黨내의 分派활동도 거의 자취를 감춘 느낌이다。이점 앞으로 解禁人士들을 迎入할적에도 平地風波를 일으키지 않게하는 지혜의 극소화와 人和團結의 실증이 바람직할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民韓黨과 국민당은 야릇한 공통점 고민 같은것을 감촉케한다。民韓黨과 과거의 新民黨、국민당과 구시대의 共和黨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할「承繼냐、斷絶이냐」하는 문제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하나「새출발」을 다짐한이상 과거지사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이른바「內燃의 素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心機一轉의 和合을 기필하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된다。

보다더 근원적인 與野관계를 관찰할적에 구시대처럼 서로 다른 民主主義觀을 내세우는 이른바「體制論爭」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퍽 다행한 일이다。與野모두가 국민이 바라는 民主主義가 곧 自由民主主義이고 代議制民主政治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오늘 우리 국민의 衣食住는 거의 西歐化했고 교육체계와 정보매체도 마찬가지여서 民主的 價値觀은 뿌리깊이 보급되었다。비유하자면 자동차는 西歐에서 발명되었으나 지금은 한국인이 잘 운전할수 있을 뿐더러 國産車가 西歐에 수출되기도 하는 격이다。

政黨은 국민의 다양한 利害와 각이한 견해를 수렴하고 통합하면서 最大公約數를 만들어 이를「對話의 廣場」에서 조정하는 것이 本領이다。이점 與野 주요3黨이 저마다 創黨2주년에 즈음하여 최초의 黨大會를 개최하는 마당에 독자적인 存在意義를 자체確認하면서도 同伴者的 對話政治의 基調를 소중히 간직한다는 사실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新春政局이 安定된 바탕위에 상호傾聽을 生産的인 보람에 연결시킬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再結合의 恨 풀리기를
—이산家族 再會추진委 結成에 바람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가 9일 성대한 결성대회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이북 5도민 연합회가 중심이되어 작년 8월부터 추진위구성을 위해 각계의 이산가족 대표들과 함께 활발히 준비작업을 전개、드디어「재회 운동」을 본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이번에 결성된「재회 추진위」는 1천만 이산 가족들의 한 맺힌 소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어린것이라 해야 할것이다。남북으로 헤어진 혈육들이 언제 서로 만날수 있을 것인가 하고 기다리다 38년이 흘렀다。그 동안「남북 적십자 회담」도 열리고 하여 한때나마 재회의 날이 다가오는 듯한 희망을 부풀리게 했으나 아직은 큰 실의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추진위가 결성취지를 밝히는 글 가운데서도 이산 가족 찾기가 하나의『행사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흩어진 혈육들과의 재회 실현사업을 추진』하자고 다짐한것을보면 이산가족들이 스스로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궐기한 운동임을 잘 알 만하다。

우리의경우 냉철히 따지면「이산가족」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할 문제만은아니다。강대국들의 전후 분할관리라는 단순한 작위로 말미암아 이겨레에 둘러 씌워진 멍에에 불과한것이었다。그분단에 의한 가족이산의 비극을 더 심화시킨것은 6·25동란이었다。이는 바로 북한 공산당에 의해 저질러진 죄과의결과였다。이산 가족들의 비통스런 상황을 장기화한것 또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결렬시킨 평양측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그러고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어느면으로나 우리 스스로에 어떤 책임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남북의 이산가족이 계속、자진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들었을때 한편 결연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비장감이 감돌고 있는듯도 하다。이산 가족 문제로 인한 고욕、그에대한 인내도 이제는 한계에다다랐고 이를 남의 탓으로만 돌려 더오래끌수는 없다는 생각이 모두의 가슴속에서 고개를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성대회에 나온 여러대표들은 이산가족들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채『이젠 서로 유명을 달리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애통스런 술회를 하였다。그런데도 우리외과의 국제기류는 우리의 분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움직이는것 같지는 않고 또 북한측마저 문제 타결에 호응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추진위는 이산 가족문제가『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떠한 조건、이유에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한다』고 결의하였다。이런 문제 접근자세는 추진위뿐 아니라 바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의 기본자세이다。

우리가 이미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도 민족의 화합이 선결문제며 제도나 이념·사상의 장벽을 넘어서 민족의 입장으로 회귀、분단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산가족 재회실현문제든、남북한간의 대화재개문제든、우리측은 다 민족의 화합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같은 기조에서 추진하고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이날 격려사를통하여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문제는 물론 통일달성에 기여할수 있는 일이라면『북한측과 어떠한 문제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번 더 강조하였다。우리측은 이처럼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고 있는것이다。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가운데는 미국무성이「연례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전세계에서 극악한 통제사회』이기 때문이라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을것이다。북한이 이런「극악 사회」라는 수렁에서 벗어 나려면 대화의길을 트는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가족재회 추진위가 벌이는 갖가지 사업은 확실히 이산의 종식과 통일 달성에 기여할것이다。대화재개에 대한「압력」을 배가하게도된다。재회운동이 활발히 벌어질수록 대화 재개 역시 촉구되리라고본다。동시에 북한사회의「해방」과「민족화합」도 더욱 촉진될것으로 믿어진다。

"被侵때 美·日 공동대처"
나까소네證言 蘇겨냥 前線장비 증강

【東京=聯合】나까소네일본수상은 8일 유사시 일본해협을 봉쇄하기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①각종 탐지기의 사용 ②잠수함동원에의한 실력행사 ③기뢰투하등 3가지 대응책을 강구할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美日양국이 공동대처해 나가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衆議院예산위에서 民社黨 오오우찌·게이고(大內啓伍)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나까소네수상은 특히『일본은 유사시 미국의 극동전략의 선봉장이 될수는 없으나 ①거대한 소련의 군사력을 저지할수없을 경우엔、미국과 협력하여 저지할것이며 ②미국이 창이라면 일본은 방패이며 ③이같은 의미로 볼때 美日방위전략은 같은 행동반경에 속한다는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美日이공동으로 對蘇방위전략을 세워나갈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또 일본은 현방위계획에 구상돼있는 방위력수준을 넘어 소련을 겨냥한 前線장비를 증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샤론國防 사임拒否
이特別閣議 査問委건의의 受諾

【예루살렘AP聯合】아리엘·샤론국방상은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査問委의 해임건의를 거부했다고 이스라엘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날 閣議에 참석했던 믿을만한 소식통을 인용、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정당인 국가종교당 소속각료들이 샤론국방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샤론국방상자신과 다른 연립정부구성정당소속각료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방송은 이날 각의에서 샤론국방상을 무임소상으로 전출시키는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국가종교당은 샤론국방상이 각료직을 떠나지 않는한 연립내각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국가종교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할 경우 연립정부는 의회에서 과반수의석에 미달하게된다。

한편 이스라엘정부는 이날 3人査問委員會의 최종진상보고서를 검토하기위한 특별각의를 가진후 메나헴·베긴수상정부의『거의 모든 각료들』이 査問委의 건의를 받아들이려 하고있다고 발표했는데 한 고위관리는 베긴수상이 査問委의 건의에 포함된 샤론국방상의 사임에 찬성하고있으나 아직 이에대한결정은 내리지않았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베긴수상이 샤론국방상의 사임 또는 해임에 관한 결정을 9일 다시 열릴 閣議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小型 ICBM 개발검토
美대통령 자문기구 건의할듯

【뉴욕AP聯合】美대통령자문기구인 전략군사위원회는 레이건대통령에게 장갑차나 헬리콥터로도 수송이 가능한 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도록 건의할지도 모른다고 뉴욕타임즈紙가 8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MX이동식미사일배치방법과전략무기현대화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한 11人전략군사위원회가 고려하고있는 이소형 ICBM이 단한개의 탄두에 무게가 9천9백79kg、길이는 11m정도가될것이라고 말했다。

배치방법을 둘러싸고 큰논란을 빚었던 MX미사일은 10개의 탄두에 무게가8만6천1백80kg이며 길이는 22m이다。

報道사진전 어제、세종회관서 개막

한국사진기자회(회장宋鎬燦)주최 제19회 보도사진전이 9일상오11시 文胎甲한국신문협회장、洪惟善한국일보발행인、李禹世한국편집인협회장、李青圭한국기자협회장등 언론계인사와 李相淵서울시부시장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제2전시실에서 개막됐다。

전국일간신문및 통신사 사진기자들의 보도사진 1백36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14일까지 6일동안 계속된다。(사진)

北韓社會 가장極惡
美국무성 人權보고

【워싱턴=李文熙특파원】北韓사회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중의 하나라고 美국무성이 8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지난82년4월이래 주민들의 국내여행을 엄격히 규제했으며 주민들이 공적이나 사적으로 주거지밖으로 여행할때에는 반드시 여행증을 받아야만 허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59년이래 10만명이상의 在日한국인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는데 이들은 북한에 도착한후『사상적인 무장』을 갖출때까지 북한사회로부터 고립됐다고 밝혔다。

美·日 외상회담
한반도문제 토의

【東京=聯合】美日양국은 10일 슐츠미국무장관의 두번째 방일을계기로 남북한 동시유엔가입및 교차승인등 한반도문제에대한 의견을 조정할방침이다。

民權黨、黨職개편
부총재 4명으로

金正礼民權黨총재권한대행은 9일 부총재에 曺基流·林采洪·黃明秀·金正秀씨등 4명을임명했다。金대행은또사무총장에는 崔寅泳、정책위의장에 朴秉柱、훈련원장 金相夏、인권위원장 姜秉珍、당기위원장 盧秉九、대변인에 金洪祚씨를 임명하고 정무위원24명을 人選발표했다。

金仁奎기자 向美
WBA戰 취재차

체육부 金仁奎기자는 오는14일 상오 (한국시간)미국、텍사스주 포트워드에서 열리는 프로복싱 WBA 웰터급 타이틀결정전(黃俊錫—도널드·커리)을 보도하기위해 9일하오 KAL편으로 떠났다。

人事異動

國稅廳

▲冠岳區세무서장 裵永浩(재무부세제국조세법규과장)▲江東세무서장 朴錫煥(국세심판소조사관)(7日字)

本社來訪

▲鄭容房씨(國稅廳 공보관)▲鄭錫和씨(農振公弘報室長) 신임인사차

記者의 눈
自律과 他律

『우리의교육이 量的으로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있으나 質的으로는차이가있다』

문교부가 대통령업무보고 서두에서 밝힌 우리교육현실에대한 단적인 평가이다。그양적인 예는 확연히 수치로 제시된다。1백%에 가까운 중학교진학률(98·8%)과 고등학교(86·9%) 대학(59%) 진학률은 선진국수준이다。

한데 문교부가 내세운질적인 예는 사뭇 추상적이어서대조가된다。우리와선진국은 교육방법에서 차이가 난다。우리가 암기위주 주입식 타율학습인반면、저쪽은 자율의 탐구학습 중심이며、교과서이외의 다양한 보조자료를 응용한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교육의 선진화를위해 타율학습을 배척해야 한다는것이다。중요한 지적이다。

문교부당국자들은 늘 우리교육이 개혁의 소지를 여전히 안고있다고 주장한다。제도는 개혁(7·30조치)됐음에도、아직도 일선교육 현장인 교실은 구태의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은 그들나름대로 문교부의 이율배반을 지적하고 나선다。자율의 여지가 적지않느냐는 것이다。

8일전국대학총학장회의의 지시사항이 그좋은 예라는주장이다。이날의 지시사항중엔 소위대학교실의「타율학습」이라는것을 배척하는 여러내용이 포함돼있다。시험의 定期的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아무때나 수시로 볼수있고、페이퍼테스트만이 아닌 강의시간의 학습태도도 점수화 할수있도록 했다。

여기에 부연해 문교부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무려40여개 항목에 달하는의무와 권장사항을 일일이 지시하고있다。이항목들을 자세히 보노라면、마치 갓입학한 국민학교신입생에게 내리는 주의사항 같아보이기도한다。예를들어 다음과같은 지시사항도보인다。

「개학첫시간부터 충실하고 밀도높은 수업을 실시할것」「교수는 학기개시전에 충실한내용으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할것」등이다。

너무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손을대는듯한 느낌을준다。

이건 분명 지나친 자율학습의 강조이며 어떻게보면 대학을 타율의 틀속에 빠뜨리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대학은 말그대로 큰학문을 한다는곳이다。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일일이 지적하고주의시키지않더라도 가르치고배우는일을 잘 운영할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문교부는 왜잔신경을 곤두세울까。물론 상당한 책임은 대학에도있다。때로는 이같은 타율의 행태가 대학인스스로가 자초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갖게한것도 사실이었다。

그것은 과거 우리의 일부대학인들이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써왔거나、중이 잿밥에 관심을 쏟듯 대학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고 떳떳치못한 일을 앞질러서저질러왔기때문일지 모른다。

우리의 대학도 이젠 어느정도「공부하는 대학」으로서 수준과 면모를갖췄다。대학이 새롭게 자세를 달리할때 나라의 교육을책임지는 문교부도 과거의자세를 버려야 한다。모든대학、교수 학생을 획일의틀에 묶어놓고、하구한날「이래라 저래라」식의 지시는 이젠 지양할때다。문교부의 지적처럼 우리의 교육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피해 하루빨리 선진의대열에 들어서려면 대학을 지도하는 방법이 과거와 같을수는 없는일인 것이다。

【李鍾九사회부기자】

政局往來

◆평화통일보는일 어려운일 아니다

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1천만離散가족재회추진위원회임원들과 환담하는 가운데『여러분들이 용기와 희망、자신을 갖고 노력하면 여러분 생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인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는일도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닐것』이라며 이들을 격려。

全대통령은 또『中共이나 소련에 사는 동포들과도 書信을 주고받고 가족들이 왕래하고 있는 오늘날、유독 北韓만이 離散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서신연락조차도 안받아들이고있다』면서『이는 인도적으로도 있을수 없는일』이라고지적。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일본 주니찌(中日)신문의 가또(加藤)사장을 접견한자리에서『나까소네(中曽根)수상의 訪韓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시원스럽게 타결된것은 가또사장같은 분들이 그동안 양국문화와 스포츠교류를 통해 노력해준데에도 크게 힘을 입었다』고 치하。이에대해 가또사장은『각하께서 한국古代文化展을 일본에서열수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謝意를 표명。

◆막바지 改編대회… 대규모化경향

지난달 20일부터시작된 民正黨의 지구당 개편대회는 10일「정치1번지」라는 서울鍾路·中區대회를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인데 막바지에접어들수록 대회는 大規模化하여 注目。

9일 상오 東서울극장에서 열린 江東지구당(위원장 鄭男의원) 대회에는 李載瀅대표 王相殷중앙위의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南在斗총재비서실장 金瑢泰대변인등 黨職者들이 집결하고 47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10일의 鍾路지구당대회에는 1백여명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것이라고 豫告。

특히 이날 江東區대회에는 陳의장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民韓黨전당대회를 의식하여 民正黨도기세를 올려야한다는 鄭위원장의요청으로 黨職者와 의원들이 대거참석한것이라고。

축사에 나선 李총무는 鄭의원이 韓日의원연맹 간사라는것을 소개하면서『11代 국회들어 韓日의원연맹이 自主性을 바탕으로 大手術을 했으나 과거엔 일본사람만 보면 혀닌、선배님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知日派로 행세했었다』며 舊韓日議員聯을 집중성토。

위원장으로 재선된 鄭의원은『선진조국건설은 올림픽타운인 우리江東에서 그 불을 당기자』고 인사。

"과거엔 日本人에 아첨하던자들이 知日派로 행세…"

◆民韓、全黨대회맞아 黨報11호발행

民韓黨은 전당대회일인 9일「柳致松총재 만장일치로 再選」題下를 머리 기사로 하고「전당대회이후의 과제」를 특집으로 다룬 民韓黨報11號를 발행。

劉沃祐부총재는 특집에서『양심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汎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라고 제의했고 金俊燮 전당대회의장은『位階를 존중하면서 新銳를 과감히 등용、老長層이 조화를 이루는 화목한 정당 질서』를 강조。

또 柳漢烈사무총장은『黨力을 축적하여 對與투쟁과 정권경쟁에 바칠때가 왔다』林鍾基총무는『85년 총선에서 제1당을 다짐하는 礎石이 돼야하며 88년 평화적정권교체의 架橋가 돼야 한다』金鉉圭정책심의회 의장은『解禁인사의 과감한 영입으로 黨勢를 강화하여 受權高地를 향해 전진하자』고 각기 의견을 밝혔다。

◆金총재、人選대상자 呼出要談

黨職개편을 앞두고 弘濟洞자택에서 杜門不出하고있던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아무도 만나지도 만날생각도없다』던 자신의 말과는 달리 9일하오 趙炳九전당대회의장과 趙炳奎중앙위의장을 자택으로 불러 연쇄접촉。

金총재는 이날하오2시께 비서를 시켜 이들이 각각 자택을 방문해주도록 전화로 연락을했는데 趙전당대회의장의경우 약30분간 金총재와 密談을 나누었으나 내용은 가려진채 추측만 滿發。

이번 黨職개편중 金총재가 가장 고민하고있는것은 부총재와 사무총장일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 金永光 趙炳鳳의원에 金遺腹의원까지 뛰어들어 難航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한편 9일 중앙당사에는 10여명의 院外중앙위원들이 모여들어『黨內여론을 존중、총재가 소신껏 해야한다』『黨外영향력을 동원하려는것은 害黨행위』라는 주문과 聲討를하기도。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しょうこそば

日本式 우동집 Phone: 465-4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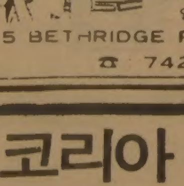
월·화: 휴업(CLOSED)
수·목: 12시-2시30분 6시-9시
금: 12시-2시30분 6시-10시
토: 12시-10시
일: 5시-9시

1391 Danforth Ave., Tor.
(Greenwood와 Coxwell 사이)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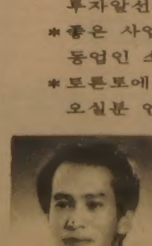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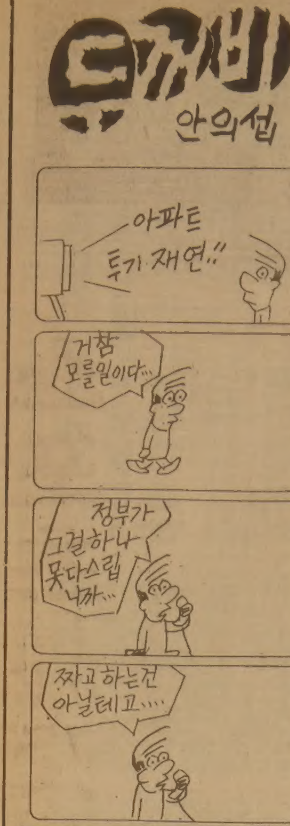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채준성

—경력—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都心건물높이 制限 완화

최고 30층까지…再開發촉진

서울市

서울 도심에있는 재개발지구의 신축건물에 대한 고도(층수)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지역별로묶여있는 고도에대한 규제를풀어 최고30층까지 건물을지을수있도록 관계법규와 조례를 개정키로했다。

金聖培시장은 이날『부진한 도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위해 도시 재개발지역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5%에서 50%로 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높여주는 한편 5개주차장 비율은 50%에서 25%로낮춰 대지활용도를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1층이상의 업무용빌딩(사무실)과 11층이상의 판매시설(백화점등)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또 도심지역신축건물에대한 용도규제도 크게 완화、기존건물을헐고 그자리에 건물을 지을때는 백화점、극장등 동일용도의 건물을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에 저촉되는 학원、터미널、예식장등은 계속 통제되며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청사 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등의 신축도 계속 규제된다。

서울시는 도심지역의 과밀화를 방지하기위해 지난79년4월 도심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층수를 최고15층으로 일괄규제해오다 지난해 5월부터는 4대문안을 5개지역으로나눠 지역별로 5、10、15、20、25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는 층수고도규제를 대폭완화한것이다。

"평화통일 앞당기는 계기로"

1千萬이산가족再會추진위 結成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위원장趙永植)결성대회가 金相浹국무총리、위원회관계자및 이산가족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하오2시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열렸다。

金相浹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이산가족 스스로헤어진 혈육을 찾겠다는 뜻이 분단된 민족의 혈맥을 잇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국민적 노력으로 승화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정부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달성하는데기여할수있는 일이라면 북한측과 어떤 문제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全斗煥대통령、유엔사무총장、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채택、「정부가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북한당국이 적극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는등4개항을결의했다。

고국의 향수가 물씬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예쁜어린이뽑기 "꼴불견"

질은화장·요란한 옷차림에 귀고리까지

요즘 「어린이 미인대회」란 묘한 행사가 이따금 열린다。화려한 호텔등에서 성황을 이루고있는 이 색다른 미인대회는 예쁘고 재능있는 어린이를 뽑아 모델이나 배우로 진출시킨다는게 주최측의 선전이어서 그럴듯 해보이지만 알고보면 거의가 선전내용과 거리가먼 장사속 행사에 그치는인상이다。주최측마다 문화단체를 표방하고 건전한 문화행사임을 강조하고있으나 대회의 분위기나 진행과정에서 「비교육적인면」이 두드러지는게 특색이고 더우기 자격이 분명치 않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다 입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석연치않아 부모들의 허영심이 가면을 쓴 상혼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榮光인지… 苦役인지… 화려한 장소에서 어른뺨치게 성장(盛裝)한 어린이들이 나오는 어린이 미인대회。주최측의 장사속과 부모들의 허영심사이에낀 어린이들만 고역을 치른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장삿속에 놀아나는 「虛榮心」

분위기등 非敎育性 투성이

지난1월 C호텔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회사주최의 「전국남녀예쁜어린이선발」대회장。

1백평이넘는 실내는 정면에 T자형 무대가 있고 객석은 3백명이 넘는 어린이·부모및 가족들로 성황이었다。

무대옆에는 9인조캄보밴드가 자리를잡고 심사위원은 C·S등 영화감독2명과 왕년의 여배우R씨、여류국악인O씨。

그리고 대회후원및 협찬으로 돼있는 J캘린더사와 S드레스집대표등。중견탤런트 C씨자리 명패만놓여있었다。

대회장인 영화계인사C씨는 『스타의 입문길인 이대회를 특히 컬러TV등 푸짐한 상품을 놓고 개최하게돼 뜻깊다』면서 『국가발전의원동력인 예쁜어린이들에게 재치·발표력·대담성을 키워주는것은 어른들의 공동책임』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대회는 코미디언K씨의 사회로 진행된다。참가어린이가 70여명이나돼 단체심사는 생략하고 5명씩 무대심사만을 하겠다는 설명이 어딘지석연치않은 인상이었다。

어린이들을 무대옆 병풍으로 막아놓은 대기장소로 모이게 한뒤 『준비가 되는동안 부모님들의 긴장을 풀어드린다』며 난데없이 무명가수1명이 등장。

「고향무정」「유정천리」등 흘러간 가요를 밴드에 맞춰 불렀다。휘황한 조명과 제스처등이 일반쇼무대와 다름이없다。

5명의 여자어린이가 먼저 무대로 나오는데 한결같이 파머머리 짙은화장에 요란한옷차림、귀고리、목걸이등 갖가지 장신구로 어른처럼 성장을 한 모습。

자기소개와 일문일답、장기자랑등으로 진행되는 무대심사는 해프닝과 비교육적인요소로 가득찬 느낌。

사회자가 여자어린이의 스커트를 들치며 『속에는 뭘입었느냐』고 묻자 객석에서폭소가 터지는가하면 7·8세가량의 어린이들이 『아리아리랑·스리스리랑』을 불러제끼는가하면 직업댄서를 무색케하는 농란한 몸놀림으로 디스코춤을 추는 어린이도있었다。10세가넘은 어린이들은 더러 깜찍할 정도로 태연히 대답을 하기도하지만 5·6세미만의 어린이들은 내내 잔뜩얼어붙은채 어리벙벙한 표정들。

어머니들이 1m높이의 무대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애타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 심사위원들앞에서는 강제로 인사를 재촉하며 갖은 교태를 보인다。어린이들이 오히려 들러리인 느낌까지 준다。

3시간가까이 무대심사가 계속되는사이 어린이들은 곤욕을 치른다。

병풍뒤의 좁은 대기장소는 난방과 실내의 열기때문에 한증막과 같다。

어린이들은 땀에젖어 녹초가된다。어린이들은 점심은 술화장때문에 음료수조차 마음대로 먹지못하고 더위에 지쳐 투정부리기도한다。끝내 裵모양(5)은 이른 아침부터 미장원을 다녀오느라 점심도 걸렀다며 『집에가자』고 재촉이지만 부모들은 아랑곳없다。

무대심사가 겨우 끝나자10대여자모델 10여명이 패션쇼를펼친다。

『지난해 이대회에서입상、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신인모델、배우』라고 주최측이 소개했지만 대부분이여중생들。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尹모양(16·S여중2년)의 어머니는 딸이 모델로 나선것이 자랑스러운듯 『출연료는 없이 한복을 마련해 찬조출연 했다』고 흐뭇한 표정이다。

서투른 패션쇼가 끝나자 대회장이 나와 『입상자 발표는 개별면접이 남았고、심사결과 집계에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추후 통지하겠다』며 대회종료를 선언한다。부모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대로 돌아선다。

부모들만 나와도 좋다는개별면접에서는 주최측이 내거는 조건을 수락하고 입상자가 선정되며 처음내건 TV등 상품은없고 입회비조로입상자는 40만~50만원씩을 내기도한다는게 참가부모들의 경험담이다。

또 처음에는 참가비2천원만 내도록돼있지만 예비심사대 VTR심사비로 3만여원씩을 더 거둔다는 것이다。

또 지난1월23일 P호텔5층 장미룸에서 열린 대회도 꼭 같은 형식。심사위원에 전직 R씨(여)와 C씨、M씨(여)등 전직 영화배우·탤런트 C씨등 유명연예인들이 들어있을뿐 진행을 맡은 사람은 같은 C씨。알고보면 C씨는 이런 대회의 단골대회장。C씨의 부인 R씨와 O씨(여)는 단골심사위원인 셈이다。

이같은 대회를 여는 단체는 영세업체들。이들은 광고대행과 모델및배우출연 알선업을 내세워 일년에 3~4차례씩 대회를 열고있는데대부분이 CF나 영화출연 알선의 약속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대개5~10평내외의 조그만 사무실에 3~4명의 직원을 두고있을뿐 연예계에 신인배우나 모델을 데뷔시킬만한 능력은 없는상태。

2개업체가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지정업체로 지정을받고 있으나 대부분3만~4만원의출연료를받는 단역을 알선하는정도라는것이다。【金宗來기자】

釜山、일부大學들 오리엔테이션

觀光호텔서 실시…말썽

1인당 4만원부담시키기도

【釜山】부산시내 일부 사립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1인당 1만6천~4만원씩 받고 유명관광호텔이나 유드호스텔등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가뜩이나 입학금마련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아대학의경우 올신입생 4천9백66명으로부터 1인당 2만원씩받고、지난5일부터 오는3월2일까지 5백명씩나눠 2박3일간 慶州유드호스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의대학은 신입생 1천8백72명의 신입생으로부터 1인당 1만6천원씩받고 시내中區寶水洞애린유드호스텔에서 오는14일부터 1박2일간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산산업대학(신입생2、093명)과 부산외국어대학(신입생 780명)도 오는 21일과 3월2일부터 각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키로 했으며 고신대학(신입생312명)은 1인당 4만원씩 받고 강원도原城郡神林面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오는25일부터 4박5일간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키로했다。

그러나 부산대·부산수산대·한국해양대·부산교대등 4개국립대학과 부산여대 인제의대등 6개 대학은 각각 교내또는 부산시민회관에서 학교경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있거나 계획하고있다。

한편 동아대학등 5개 사립대학은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일정중에 울산현대조선、포항종합제철등 산업시찰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경비를부담하고있다고말했다。【聯】

경찰용 가스분사기

派出所서 5개紛失

범인체포용으로 사용되는 경찰의 가스분사기가 무더기로 분실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江東경찰서는 9일 시경의 장비점검에 대비、각파출소에 지난해2월 지급한1백여개의 가스분사기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吉洞、風納洞、草堂3洞、城內1洞등4개파출소에서 5개의 가스분사기가 분실됐다。

가스분사기는 길이 12cm지름3.5cm의 원통형으로 분사약을 넣어 2~3m거리에서 얼굴을 향해쏠경우 5~10여분동안 눈을 못뜨게돼범인체포에 이용되는것으로 범인들의 손에 들어갈경우 범행무기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새벽 경기 議政府市松山洞 로터리에서 행인의 돈지갑을 뺏기위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던 鄭文培씨(23)가 서울 城北경찰서에서 특수강도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海岸매립싸고 충돌

蔚山、주민·施工회사간에…6명다쳐

【蔚山】해안매립공사를둘러싸고 배수로가 막히게된 蔚山鹽浦2洞 섬네부락주민2백여명이 해안매립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다 공사시공주인 현대강관측과 8일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충돌、宋錫炎씨(36)등 2명이 중상을입고 蔚山시鶴城동 바오로병원에 입원중이며 주민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충돌은 지난1월27일 현대강관측이 건설부로부터 공장증설및 야적장을 만들기위한 허가를받은 5만7천여평의 매립지가 기존1백14가구의 주택가가 매립지보다 1m30cm가량 높아져 주택가의 배수가 불가능하게된 주민들이 배수로와 배수구를 먼저 만들어줄것을 요구하면서 실력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려다가 일어났다。

한편 蔚山시는 현대관광측에대해 배수로확보와 이주대책등 주민들과의 원만한대화가 이루어 질때까지 공사를 중지할것을통보하는한편9일 상오10시주민대표20명을불러 조정작업을펴고있다。【聯】

엎치락 뒤치락 「9년訟事」

現代건설이없앤 漢江주자島

大法재상고심 賠償판결번복

지난74년 現代건설이 골재채취를위해 수몰시킨 漢江주자도가 「국유하천이냐 사유지냐」를 놓고 대법원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땅주인과 現代측이 9년째엎치락뒤치락 법정다툼을 계속하고있다。

대법원민사부는9일서울城東區玉水洞86 맞은편 漢江한가운데의 속칭 주자도 땅주인이자 원고인 李順花씨(57·여·서울城東區城水洞48 5의19)등 3명이 現代건설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現代는 李씨등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인 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토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이사건에대한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재항소심)판결을 거친후 나온 다섯번째 판결로 지난80년8월의 대법원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문제의섬 주자도가 거액송사의 대상이된것은 지난64년 건설부가 고시한 「강물이 흐르고있는 곳으로서 상당한유속으로흐르는 모양과 흔적을 나타낸 구역은 국유하천으로 하되、홍수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곳은 사유지로 본다」고정의한 내용의 해석때문。

現代건설은 지난 74년 서울시의 漢江개발계획에 의해 건설부로부터 狎鷗亭洞336일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공사하면서 인근에있는 30만평 모래섬인 주자도에서 모래와 자갈을 퍼내는 바람에 이섬이 물에잠겨버렸는데 이섬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李씨등이 現代건설을 상대로 『1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계속돼왔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각 심급마다 『주자도는 漢江구역에 속하는 국유하천이므로 現代건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해석과 『홍수등으로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을뿐 사유지에해당하므로 現代건설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80년8월 대법원은 『홍수나 자연현상등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위를 기준으로 주자도를 국유하천으로 본것은 잘못』이라며 2심판결을 파기했고、82년12월5일 재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되돌아온사건을 놓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다시 대법원이 『홍수때 문제의 땅이 물에 잠기는지 여부와 어느정도 물이 흘러야 홍수인지등이 충분히 심리돼 있지않다』고지적、現代측의배상책임유무를 다시따져보라고 재차 파기환송것으로 사건은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金塊등 2億밀수

보관해온 여관주인 檢擧

서울시경은 9일 밀수입된 스위스및 홍콩제금괴등 2억원어치를받아 보관하고 있던 李相郁씨(47·서울鍾路區內需洞·대지여관주인)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밀수범 리챠드·모세씨(30·이스라엘인)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된 모세씨는 홍콩거점의 국제금괴밀수단원으로 지난 5일 하오 金浦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스위스제 1천그램짜리 금괴 8개、소형홍콩제 금괴 5개등 금괴 8천9백50그램과 로렉스시계1개·일화 7백70만엔등을 숨겨들여와 투숙했던 李씨의 여관 금고속에 감추어두고 처분처를 물색중이었다는 것이다。

全北·忠南눈내려

일부선 交通두절

【全州·大田】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과 충남지방에는 8일밤부터 눈이내리기 시작、전북長水의 14cm를 최고로 평균6·4cm의적설량을 보였다。

전북도의경우 8일 밤10시께부터 산간부와 일부평야지역에 눈이내리기 시작、9일 상오8시현재 長水의 14cm를 비롯、群山10·9 全州10·5 鎭安9 裡里7·6 茂朱5·7 益山5·5 金堤1·5cm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이로인해 9일상오 6시부터 茂朱~안천간등 산간부6개도로와 群山~내초도간등 시내버스 5개노선의 교통이 두절됐다。【聯】

낙찰계 7億챙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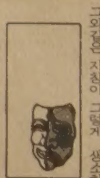
달아난 女人수배

【釜山】부산동부경찰서는9일 이웃주민들과 계를 조직、4년동안 계돈 7억원을 챙겨 달아난 정길순씨(53·여·中區寶水洞1가33)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는 지난78년9월부터 이웃 주부들을 상대로 10여개의 낙찰계를조직、그동안 계원 3백50여명이 낸 계금 7억9천여만원을 챙겨 지난3일 자취를 감추었다는것。【聯】

"농사꾼 知事"

「農道충북」긍지심은 任成宰지사



「農道충북도」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농도하면 전남북·충남·경남등을 떠올리게 마련이니까。

그러나 충북도민들은 「농도 충북」이란 긍지에 차있다。지난해 쌀증산실적이 전국2위인데다 淸原郡北一面外坪里 金忠勳씨(48)가 전국증산왕으로 뽑혔으니 당연한지도 모른다。이러한 자부심이 전도민의 마음속에 깔렸기 때문인지 任成宰지사(52·사진)는 스스로를 「농사꾼지사」라고 부른다。

그가 80년9월9일 지사로 부임한후 충북이 농도로 발돋움했으니 그와같은 자칭이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사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있다。그가지사로 부임했을때 충북은 수해로 입은 상처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다。80년7월22일 報恩·槐山·淸原郡을 할퀴고 지나간 수해로 2백12명이 죽거나 다치고 이재민만도 7천9백44명이나 됐다。

부임 첫날부터 수해현장으로 달려야했다。수재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엔 수해복구지원을 요청했다。우선 6백억원을 들여 1천5백29동의 가옥을 신축、수재민을 입주시켜 재생 의욕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냉해까지겹처 쌀수확량이 평년작의 46%에 머물러 다시한번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정부대여양곡으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했으나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무엇보다 도민들에게 「농도 충북」의이미지를 심어 주는게 중요했다。

道民거의가 토박이…"團合잘돼요"

이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들로 뛰어나갔다。경작지의 52%가 밭이고 48%가 논인 충북에서 도민들에게 「농도」가 될수있다는 신념을 불어넣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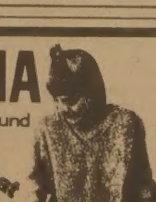
81·82년도 미곡생산량이 평년작의1백10%나 됐다。

전도민의 대부분이 충북토박이라 단합이 잘돼 짧은기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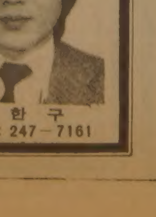
『화합과 총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農道충북」이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道政방침을 밝히는 任지사의 발언은 판에 박은 듯한 미사여구로 들리지 않았다。【姜升遠기자】

자위정신 발휘하여 숨은간첩 찾아내자
간첩침투 방지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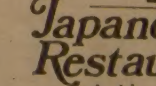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00-다음 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 날2시까지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한국蹴球 영파워時代

청소년팀 蘇격파로 새로운轉機마련

스포츠外交서 큰수확

국가대표팀에 자극제 구실

한국은 8일 방콕 청소년축구대회서 사상처음 소련을 격파, 또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과 맞선 소련팀이 소련을대표하는 청소년 대표선수들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않으나 국제대회서 소련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스포츠외교적인 측면에서 매우큰 의의를 갖는것이며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우승이후 큰수확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소련축구는 세계무대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82년 스페인 월드컵대회 2차리그에 진출, 폴란드에 골득실차로 밀려 4강전에오르지 못했지만 스케일이큰축구를 구사 했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만해도 소련은 1회대회(77년·튀니지) 우승팀이며 79년 東京세계선수권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1885년 영국에의해 처음 축구를 도입한 이래 정확한 패스를 기초로하여 남미적인 유연성을 가미한 소련나름의 축구를발전시켜 한때 레프·야신과 같은 세계적 GK를 배출했다. 소련이 유럽의 주목을 받은 것은 2차대전후 디나모·모스크바가 영국에 원정(54년)했을때 였다。모스크바는 프로강팀과 4번싸워 2승2무를 기록했고 54·55년에 스웨덴을 7-0, 6-0으로 격파하고 당시의 무적 헝가리와 2무승부를 기록, 세계에 얼굴을내밀었다。

유럽지역에서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공식대회는 명실상부한 1패선수들로 구성되는 인터내셔널 A 경기를 비롯하여 2軍들이 맞서는 인터내셔널 B와 21세이하(언더21)·18세이하(언더18)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초청대회인 이번 泰國청소년 대회에는 63년8월이후출생자(19살)들이 참가했다。

뉴델리 아시안게임 참패쇼크이후 축구재건의 소리가높은 이때 한국청소년 선수들의 선전은 선배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큰자극을주는 쾌거였으며 비록 연령기간이 짧고 체력조건과 기량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정신력만 제대로갖추면 좋은성적을 올릴수있다는 사실이 실증되었다。

한국은 이번대회 6게임서 17골을 기록, 게임당3골이넘는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李泰根 申連浩가 각각 5골, 李太炯 金三洙 각2골, 金鍾珉 金鍾建 盧仁佑 각 1골로 득점가능한 공격수들을 많이 갖고 있다. GK李文榮(동북고)도 기대이상으로 좋은수비력을 보여 金豊柱의 대타로 조금도 손색이 없었고 文元根(서울시청)은 뛰어난 감각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 주었다。

◇申連浩의 슛…네트 "출렁" 제1회 泰國청소년축구대회 한국—소련 준결승1차전에서 한국의 申連浩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가 후반24분 소련 GK 시포브스키를 따돌리고 결승골를 성공시키고있다。【방콕 8日AP電送=聯合】

申連浩 황금의 決勝골

泰청소년축구 한국、強敵 蘇에 1-0승리

"2次戰도 이길수 있다" 朴감독

【방콕=本社국제전화】 제1회 泰國 국제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의 朴鍾煥감독은 10일 열리는 蘇聯과의 준결승2차전을 앞두고 『8일밤 1차전때의 페이스만 유지하면 무난히승리, 결승에 오를수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련팀에대해 朴감독은 『소련 여러지역서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멤버가운데 몇명은 오는6월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선수단은 준결승 1차전서 소련을 물리친후 더욱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있으나 張政 金鍾珉등 4~5명이각종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주전급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10일 경기에는 그동안 게임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을 기용할 계획이며 黃永珥 (금호고) 를 왼쪽윙으로 발탁할 구상도 갖고있다。

소련은 장신을이용한 전형적 4·3·3 시스템을 사용하고있으며 한국은 4·3·3포메이션과 4·2·4대형을 적절히 변형시켜 攻守의균형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8일밤열린 소련과의 준결승1차전서 FW申連浩(19·금호고)가 후반24분 文元根의 도움을받아 귀중한 결승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승리, 76년 이란왕자배대회서 소련과 처음맞서0-1로 패한 이후 7년만에 설욕했다。

이날 또다른 준결승전1차전서 泰國A팀과 폴란드는 0-0으로 비겼다。

◇준결승1차전

한 국 1 (1-0, 0-0) 0 소 련

태국A 0 (0-0, 0-0) 0 폴란드

東邦 霸權다툼 太平洋

전국 女子 실업농구

東邦生命과 太平洋化學이 지난해12월 대통령배 대회결승전서 격돌후 또다시 여자실업농구 정상다툼을 벌이게 됐다。

9일 文化체육관에서 속행된 제5회 전국여자실업농구대회 5일째 준결승에서 東邦生命은 車良淑이 리바운드에서 분투하고 金和順이 종횡무진 누벼 鮮京을 65-53으로 격파, 결승전에 진출했다。太平洋化學은 코오롱을 66-44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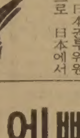
東邦生命은 이날 車良淑의 리바운드와 金和順의 슛으로 초반부터 우세하게 게임을 이끌었다。

鮮京에서는 鄭智惠가 어시스트, 슛에서 큰 활약을 보였고 李愛子 朴月姬등 장신포워드 라인이 호조를 보여 전반서 34-33 한점차로 추격했다。

◇제5일전적 ▲준결승전

동방생명 65 (31-34, 20-33) 53 선경

태평양화학 66 (38-28, 22-22) 44 코오롱



K O敗 당하면 45일간 쉬어야

日권투委 규정마련

【東京聯=聯合】 日本권투위원회는 8일 앞으로 日本에서 경기를갖는 권투선수들은 K O敗경우 다시 경기를벌일때까지 최소한 45일의휴식기간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투선수의 안전을위한 새로운규정이 오는3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규정에는 필요한경우 두뇌촬영도 의무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뻬 金聖文우승 플러레선 高樂春

세계펜싱選拔戰

세계청소년 펜싱 선수권대회 파견선발전 최종일경기가 9일 한국체대체육관에서 열려 남자에뻬에서 金聖文(수산대)이, 플러레에서 高樂春(대구대)이 각각 우승했다。

◇최종일 전적

▲남자에뻬=①金聖文(수산대) 4승1패②尹南珍(한체대) 4승1패 (이상 바라지제일)③金泰萬(한체대) 3승2패

▲남자플러레=①高樂春(대구대) 5승②李永錄(유성종고) 3승2패 ③李喜永(대구대) 2승3패

水泳聯 常任이사진

대한수영연맹은 9일 상임이사진을 구성했다。

◇상임이사진

▲회장=李明博 ▲부회장=權人柱 朴圭直 張東春 ▲전무=權泰根 ▲총무=趙民柱 ▲재무=金正國 ▲기획=崔寅泰 ▲국제=姜錫貞 ▲홍보=千信一 ▲심판=張東春 ▲경영=權泰根 ▲수구=李雄基 ▲다이빙=李弼中 ▲싱크로나이즈=申敏子 ▲감사=車慶秀 尹星熙

排協전무 朴勝洙씨

대한배구협회는 전무이사에 朴勝洙씨 (大宇부장)를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앞으로 협회운영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추진해나가기로했으며 각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계획을 추진키로했다。

상임이사진은 趙昭來회장과 전무이사가 협의, 곧구성된다。

張書山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2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962>

여환은 처음에는 용화세계란다가 미륵의 출현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보름에 한번씩 있는 수도회 때에나 잠깐 비출뿐이었다. 계화가 데려오는 사람들이란 거의가 인근의 농사꾼들이나 겨우 먹고 사는 행상들이거나 부녀자들이었고, 정원태와 황회가 인도한 사람들은 예전 검계의 행수답게 지방하리들이나 중인층들도 많았다。그들은 따로이 약조하기를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절대로 뜻을 드러내지않기로 하였고 교세를 늘려 믿음이 굳건한 향도가 천여명이 되기 전에는 되도록 설법의 대집회는 피하기로 하였던것이다。계화는 가끔 환자를 위하여 가호마다 방문하여 굿을 해주었고, 여환이 찾아가 밤새도록 독경을 하는적도 있었다。칠성암의 미륵인 여환에 대한 소문은 인근 사방에 차츰 퍼져 나갔고, 그는 매우 영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칠성암을 싸고있는 높다란 나무에서는 철을만난 매미들이 다투어 울어대고 있었고 법당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법당 마루에는 남녀노유 십여명이 앉아서 여환스님이 나와 착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반신불수가 되어 입이 비뚤어진 노인이며, 정신병에 걸린 아낙네, 속병 앓는 남자, 각종 고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는 갖은 우환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다。이러한 사람들 틈이 입에 입을건넌 소문을 듣고 중들이어서 칠성암을 찾아왔던 것이다。이제 갓 선무당이 되어 영험을 받으려는 이들도 있었으며, 여러군데의 불사를 찾아다니다가 실망한 이들도 있었다。그들 모두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붙잡을데 하나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계화가 가호를 방문하여 행여 나하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고, 이웃집의 권유를 받고온 사람들도 있었다。여환은 법당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앉은 뒤에도 계화가 가르친대로 주문을 외울때까지 기다렸다。계화가 말하였다。

『성신을 맞기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해요。여기 온 이들은 세상 잡것들에게 오롯 시달림을 받아 마음이 어지러워져있지요。향도가 되려면 먼저 미륵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을한곳으로 모아야만 합니다。나모현거도솔미륵존불, 나모당래교주미륵존불 나모삼회도인미륵존불』

한 귀절의 염송을 할적마다 합장을 풀고 절하였고,삼배를 드린 뒤에 입속으로 되풀이 염송하면서 묵념 (黙禱)에 들어가는데 잡념의 갈래를 자꾸 끊으면서 주문에만 집중하도록 하였다。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귀찮은 생각도 들고, 다른 절에서도 늘상 하던 일이라 별반 기대없이 따라서 하였다。여환도 아랫방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염기를 끌어모으듯이 묵념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제법 가라앉았다 싶어지면 법당으로 나왔다。여환은 먼저 좌중에 합장하여 인사를 올리고나서 중앙의 미륵존불 위패를 바라고 예를 올렸고 계화의 지시에 의하여 좌중 사람들도 예를 올렸다。여환은 그제서야 일일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여기 오셨읍니까?』

『예…저… 보살이 어제 집에 와서 여기 오면 잡병이 다 낫는다기에…』

더듬거리는 사람은 풍병이 걸려 얼굴이 비뚤어지고 왼손 왼발이 구부러진 노인이었다。

『어디 사시는 뉘십니까?』

『임기동 (林己同) 이오。시내비골 삽니다』

體育會 86·88 青寫眞이 없다

어제定總 새로운 事業계획 안나와

올 예산 98億승인…90億이 국고보조

작년 7월12일 출범한 대한체육회 鄭周永 집행부는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해 체육인들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참신한 비전을 아직 제시하지못하고 있다。9일 대한체육회 강당서 열린 82년도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작년보다 23억원이 늘어난 98억7천만원의 금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궁과 양궁을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끝났다。예산내역을 보면 90억원이 국고보조금이고 8억7천여만원이 자체수익인데 사업계획은 작년과 대동소이,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鄭周永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재를 털어 대한체육회를운영할 의사가 추호도없다고전제, 자신은기업을일군창의력과 노력으로체육회를 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鄭회장의 이같은 소신에 대해 일부 체육인들은 과거 집행부의 사업체계를 그대로 답습한것이아니냐고 반문하고있다。

86년 88년을 향해 한국체육을 끌고갈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해달라는 대의원의 질문에대해서도 鄭회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금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강화훈련비로 20억원. 체육회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대비, 금년에 3백일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화훈련선수들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년내내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다。이날 L대의원은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대표선수중 泰陵강화선수가 50%밖에 되지않았다고 지적하고 泰陵강화훈련으로 실력향상을 기대할수있는 비율은 50%밖에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泰陵에 입촌한 많은 선수들이 강화선수가 되었다는자부심 보다는 선수촌의 획일적인 생활에 짜증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각종목 대표급 선수들이 泰陵선수촌 생활에 흥미를 느낄수있는제도적 개선책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사무총장이상의수뇌진에 경기인 출신이 없다。金鍾烈 부회장이 사임함으로써 경영인들의 체육회가 되어가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閔炳宅기자】

82년도 最優秀선수 崔允喜·尹德夏표창

우수團體·선수도

대한체육회는 9일상오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82년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수영의 崔允喜, 사격의 尹德夏를 비롯, 최우수단체, 우수선수 23명, 8개우수단체를 표창했다。

◇표창자

▲최우수선수=崔允喜(수영) 尹德夏(사격) ▲최우수단체=牙山高(하키) ▲우수선수=張在根(육상) 申順浩(테니스) 崔古蘭·宋鳳敏(이상연식정구) 尹琼美(탁구) 朴世龍(사이클) 金東吉(복싱) 方大斗(레슬링) 安德榮(역도) 洪顯旭(씨름) 魏義鎭(유도) 金景男(검도) 申貞順(궁도) 金奉七(승마) 郭善行(체조) 吳承順(빙상) 朴佳亭(배드민턴) 吳日男(태권도) 裵基允(펜싱) 池炫靜(피겨) 金東煥(스키) 金成文·崔希在(이상롤러·스케이팅) ▲우수단체=淸溪(축구) 陸軍체육지도대(야구) 鄭一여중(농구) 現代(배구) 圓光大(핸드볼) 서울師大부고(럭비풋볼) 長城여종(조정) 高麗大(아이스하키)

"韓日프로野球 우승팀 대결하자"

日中日신문 올부터 「아시아시리즈」開催제의

日本 중부지방의 유력 일간지 쥬니찌 (中日)신문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83년부터 쥬니찌신문 주최로 韓·日양국 프로야구 우승팀끼리 대결하는 프로야구「아시아시리즈」를 갖자고 8일 제의했다。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쥬니찌신문은 자매신문 쥬니찌·스포츠와 방송을 운영하고있으며 82년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우승팀인 쥬니찌·드래건즈를보유하고있다。

日本프로야구계는 매년 美國프로팀을 초청, 친선경기를 갖고있으나 그주최권을 요미우리(讀賣)와 마이니찌(每日)가 독점하고있다。

KBO는 쥬니찌신문의 제의에대해 시기상조로 판단, 결정을 보류하고있다。

東洋化學 남자배드민턴 창단

東洋化學 남자 배드민턴팀이 오는21일 창단된다。

東洋化學은 姜達周씨를 코치로, 아시안게임 銅메달리스트인 金炳植(조선 내화)와 崔秉學(한국체대)을 선수로 스카웃했다。

◇선수단

▲단장=金鮮烈 ▲감독=洪奎善 ▲주무=崔琬鍾 ▲코치=姜達周 ▲선수=金炳植·崔秉學

林惠慶 시니어우승

全國피겨스케이팅

林惠慶(한체대)은 8일 동대문실내스케이트장에서 폐막된 제37회 전국종합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시니어부에서 우승, 세계선수권대회참가선수로 선발됐다。

林은 이날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1백40점을 얻어 총2백25·9점으로 1위를차지했다。

林은 오는 3월7~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83년도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다。

주니어부 A조에서는 鄭星佚(언성중) 池炫靜(리라국)이 각각 남녀부1위를 차지했다。

그라파이트 곧 國內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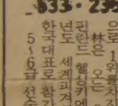
가볍고 强한 테니스라켓

종래의 라켓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그라파이트 테니스라켓이 곧국내에 선보인다。

그라파이트는 우주항공기술로 개발된 순수탄소섬유로서 70년대초부터 스포츠용품의 원료로 쓰여왔으며 중량이 가볍고 강도와 탄력이 높아 경기력이 향상되고 테니스엘보등을 예방할수있다고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낫소가 밝혔다。

낫소는 82년초 그라파이트를 스포츠 산업에 도입한 미국 알딜라社와 제휴, 국내 최초로 3종의 1백% 그라파이트 라켓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일보



633·2361

533-2363 World Book 세계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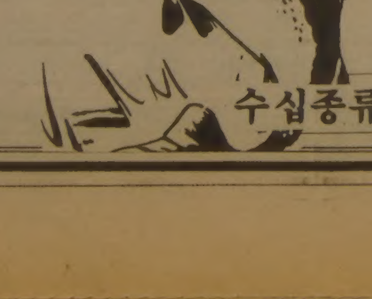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Camelot Creations
(Div. of Sunglass Promotions Inc.)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 매 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 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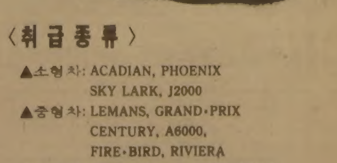
Available 15% Discount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2125 Steeles Avenue West
Weston, Ontario
M9L 1R5
Bus: (416) 742-6336
742-6339
RAVI RAWANA

Canadian Fish Market
생선 전문집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코리아타운에 생선가게를 인수, 보다 한국인 입에 맞도록 각종 생선및 신선한 횟감을 구비하고 교민들께 선 보이고자 합니다.
일차 들려주셔서 지도편달 해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곤 올림
658 BLOOR ST. W.
(내고향통닭집 옆집)
☎ : 535—2431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훈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법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길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자동차 쎄일즈맨 구함.

다운타운에 있는 커다란 General Motors 차딜러에서
새차 쎄일즈맨 구함.
회사차와 의료보험및 여러가지 혜택이 있음. 유경험자 원함. 전화: 964-3211 Mr. M. Tubby

입주하셔서 가사 돌보아 주실 할머님 구함.
Jane & Lawrence 지역.
전화: 244-2301(오전7시-저녁7시 사이)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음,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도넛숍 여자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스토아 파타임 남자헬퍼 구함.
낮에 일할 분.
전화 : 488-1634 (저녁 6시 이후)

출퇴근하며 유치원다니는 남아(5세) 돌보실 할머니 구함.
시간 : 11시~오후5시까지(주중만)
전화 : 487-8665 (오후4시 이후)

풀타임, 가발 만드실분 구함.
다운타운 위치, 커다란 가발회사
남자 가발 만드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함.
색갈도 들여야 하고 가발 바느질 잘해야함.
영어를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함.
전화 : 977-1122 Mr. SCIARA

KOREAN UNIVERSITY STUDENT

Graduates or near graduate person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ternational Canadian company on Korea. Must have a high level of energy and dedication and be specializing in Business and Commerce.

There will be an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Toronto and will in future be promoted to a technical representative in Korea. An attractive renumeration package in U.S. Dollars is available to the successful candidate.

Please contact Mr. SCIARA Phone: 977-1122

식자하실 여자분 또는 배우실분 구함.
식자는 추레인 시킴.
단, 타자는 칠 수 있어야 함.
전화: 533-2361 Mrs. 강

---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어 매매
전화 : 633-4983 Mr. 최(오후 1시이후)

레스토랑 매매
전화: 251-1423(오후7시 이후~10시까지 Mr. 이)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탁+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

1)Bloor St. 써브웨이 코너
8층+1 사무실 붙어있고+아파트. $850,000
아스킹: $200,000 다운
2)11개 스토아 플라자. $107,000 net net annual income
3)스토아+Gas Bar. 1.3에이커. $37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Ltd.

아담하게 꾸며진 미용실이 딸린 3층건물 팝니다.
서브웨이에서 1 Block
전화: 463-7423(B), 461-3363(R)

▲모텔: 나이야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칸.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가게 장비일절 매매. 캐쉬레지스타 1개, 유리 쇼우 케이스 2개, 카운터 테이블 1개, 옷걸이 3개, 선반재료 다량, 염가로 매도함. 전화 : 967-4461 Mr. 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레스토랑과 타번 매매
Burlington 다운타운에 있는 좋은 자리. 리스: 17년 6,000 Sq. Ft. 전화: 823-6984 Louis Battista

---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가게(800 Sq.Ft. 월 450 / 렌트) 같이 쓰실분 구함.
Wilson + Dufferin 지역.
전화: 635-7154 Mrs. 김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하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W.
전화 : 536-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밀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파이프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문을 열었읍니다!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

손님에게 정성을....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은 금번 새로운 영업장을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으로(2월15일) 이전하여 전반적인 대고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한일은행은 순수민간은행으로써 반세기를 통한 은행경험을 토대로 손님에게 정성을드라는 친절한 써비스로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교민과더불어 성장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민간 은행이 될 것을 다시 굳게 다짐 합니다.

영업안내 865-0456

예금업무	정기예금 (Term Deposit)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정기적금 (Installment Saving Account)
대출업무	당좌대월 · 적금대출 및 개인사업자금대출 적금담보대출 기업사업자금대출 · 무역금융
수출입업무	신용장 개설 · 상업어음추심 수출화환어음매입 ·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송금업무	우편송금 (Mail Transfer)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기타업무	신용조사대행 · 투자상담 경영상담 (Syndicate, Off Shore Loan)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3.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입니다.

새로운 "우리은행" 탄생!

한일은행의 특징

1.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 및 대출의비밀을 절대 보장하여 드리겠읍니다.
2. 저희 은행은 후한 이자에 저렴한 대출로 봉사하겠읍니다.
3.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에 대하여 CDIC보험은 물론 한일은행 서울본점이 보증합니다.
4. 저희 은행은 특히 예금에 대하여는 별실에서 비밀로 취급 처리하여 드리겠읍니다.
5. 저희 은행 카네이션 적금은
   (1)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불입도중 원하시면 불입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융자하여 드리겠읍니다.
   (3)계약금 범위내에서 원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4)바쁘시면 통장과 함께 부금액을 수표로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통장을 보내드리 겠읍니다.
   (5)부금의 연체가 없으신 분은 만기시 당행 소정의 특별 보너스를 선사하여 드리겠읍니다.

HANIL BANK'S OVERSEAS NETWORK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SUITE 6960, 1 FIRST CANADIAN PLACE
TORONTO, ONTARIO M5X 1C9
☎ 865-0456

쉬지 않고 가는 시간, 쉬지 않고 느는 이자 ◎목돈마련의 지름길 한일은행 카네이션 적금